

2014년 아시안게임은 동북아의 허브 인천에서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17th Asian Games 2014

대회기간 2014년 9월 19일 ~ 10월 4일(16일)
주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모·종목 45개국 OCA회원국 12,000명(선수, 임원), 37개 종목



Good Morning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INCHEON

굿모닝인천
2006 | 12



아름다운 모델들



전문 모델의 화려한 위킹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따듯하고 가벼웠다.

지난 11월 23일 오후3시 라마다송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장학금마련 자선디너패션쇼'에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최용규·이원복 국회의원, 박승숙 중구청장 등 인천지역 정·관계 인사 60여명이 깜작 모델로 변신했다.

재단법인 승국문화재단 후원회와 인천여성 CEO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패션쇼는 인천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술, 문화예술, 자선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에스터리, (주)K&J(앙드레김 골프웨어), 삼미모피 등 의류업체들이 협찬한 한복, 골프웨어, 모피 등을 입고 무대에 선 명사 모델들은 자신들이 입고 땀낸 옷을 구입, 옷값을 모두 자선기금으로 기부했다.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굿모닝인천

2006.12 (통권 156호)



표지설명 _ 눈내린 송기천 인근 공원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6년 12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窓 2006

04아듀 2006 | sunset & sunrise

06Comming Soon | 인천국제공항철도

10Zoom In | 2006 인천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

12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리포트 | OCA평가단 방문

14문화마을 순례 | 공무수행밴드

16이달의 공연 | 창극 '청(淸)' 외

1812월 Incheon & Arts | 리얼그룹 콘서트

19Congratulation! | 극단 〈십년 후〉 제24회 전국연극제 대상 수상

20도시가 새옷을 입는다 | 검단신도시 건설

22굿인천 굿뉴스 | 주거복지 평가 전국 1위 외

26경제자유구역 뉴스 | u-City 건설 첫 단추 꿰다 외

27시의회 소식 | 멕시코 메리다시와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외

28굿모닝인터뷰 |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숙 조례정보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이명숙 윤리특별위원장

31김치 찰칵

32新 동네방네 | 인천지하철 역사의 숨은 공간 즐기기

35굿모닝時評 | 삼실(三實)의 실천

36자매도시 탐방 | 제9회 인천시공무원 중국 텐진시 파견 연수

41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디저트의 순서는 과자·과일·차

42만화로 보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㉟ |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의 묘 터 있는 반주골

44참살이 동의보감 | 건강한 음주

45아침만만 재테크 | 종합비타민 금융상품 변액보험

46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수수하고 단정하고 논리적이고 명석한 여성 변호사 박소영 씨

50글마당 생각마당 | 이번달 주제 '봉사'

53Info Box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안내 외

58세·상·만·사·仁·川·萬·寫 | 이젠 좀 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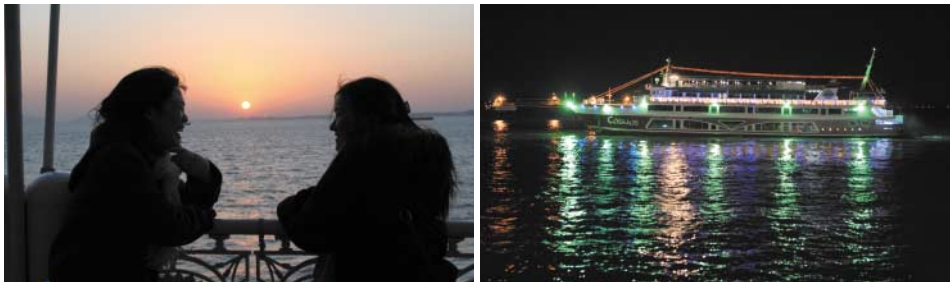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아듀 2006 | sunset & sunrise

황금빛 너울 파도타고 낙조 품에 ‘풍덩’



태양이 자신의 안식처 서해바다로 점차 기운다. 어제 진 태양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말간 얼굴로 떠오르지만 마지막 날의 해넘이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에게 일몰과 일출을 본다는 것은 관광이라기보다 장엄한 ‘의식’에 가깝다.

아침, 낮, 저녁, 밤, 새벽... 하루는 이 다섯 풍경으로 이뤄져있다. 서해바다를 품고 있는 인천에서는 여기에 ‘황혼’ 시간이 하나 더 낀다. 비록 다섯 풍경보다 시간이 훨씬 짧지만 수평선에 그려지는 진홍빛 노을 수채화를 감상하는 감동은 길고 크다.

인천만큼 한해 뒤풀이 장소로 적합한 곳은 없다. 한해 마무리와 새해 시작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먼 길을 택한다면 교통 체증으로 인해 졸지에 고속도로에서 해꼬리를 보거나 낮선 국도에서 중천의 해를 볼 지도 모른다.

선상(船上)에서의 해넘이와 해맞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직접 낙조의 품안을 휘젓고 다녀보는 것은 인천에서만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월미도에서 뜨는 유람선을 타면 묵은해에서 새해로 통과하는 시간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월미도코스모스유람선(032-764-1171)과 연안부두현대유람선(032-882-5555)에서는 황금빛 너울 파도를 타고 12월31일 일몰프로그램과 1월1일 일출맞이 특별이벤트가 진행된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선상에서 바라 본 영종대교

인천노을... 저마다 다른 빛깔

‘노을의 고장’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인천에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해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수도룩하다. 서두르자, 대출금 없이 공짜로 수만평의 노을을 먼저 분양받자.



강화 **장화리** 카페마을의 낙조는 커피잔부터 불게 물들인다. 바다 속으로 골짜기 들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이의 목구멍에서도 ‘꿀꺽’ 소리가 날 만큼 장화리 바닷가의 저녁은 적막하다. 강화도 **적석사**에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대가 설치돼 있다. 멀리 석모도를 불게 적신 노을은 부처님의 뺨도 불그레하게 물들인다.



월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풍경은 영화 와이드스크린 보듯 시야가 넓어서 좋다. 노을을 배경 삼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박들의 모습이 한가롭게 다가온다. 마개 없는 물감통에서 속절없이 쏟아지는 진홍빛 물감 때문에 **용유도 을왕리** 백사장은 매일저녁 적(赤)사장이 돼 버린다. 생선 비린 냄새보다 사람냄새가 더 진하게 풍기는 **소래포구**. 만선을 꿈꾸는 어부의 심장처럼 하루 종일 이글거려던 태양도 어느덧 수인선 협궤철교에 걸리며 바다 멀리 붉은 주단을 깐다. 인천의 노을은 저마다 다른 빛깔이다. 어느 곳에 서서 노을을 감상하건, 해는 저마다 독특하고 색다른 변주곡을 연주한다.

공항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호텔급 서비스는 ‘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공항철도(주)



공항철도 직통열차

2007년 4월의 어느 날, 계양구 병방동에 사는 김인천 씨는 홍콩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10시에 출발하는 인천공항발 아시아나항공 홍콩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그가 집을 나선 시간은 오전 9시. 사업상 해외출장이 잦은 그는 간단한 수트케이스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지 30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에 앉아 한숨 돌리고 나니 몇 개월 전 만해도 행여 비행기를 놓칠세라 2,3시간 전부터 서둘렀던 기억이 새삼스러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김씨의 여유 있는 탑승을 도운 것은 바로 공항철도. 집근처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에 오르면 불과 25분 만에 인천공항에 닿기 때문에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

다 수월하게 공항에 갈 수 있다. 또 길이 막히거나 사고 등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공항 도착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불과 넉 달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가상해 보았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도심에 잇는 공항철도가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항공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공항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공항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에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플랫폼

정확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총 연장 61.5km의 공항철도는 복선전철로 역사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우선 내년 3월에는 1단계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간 40.3km를 개통한다. 이 구간에는 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터미널, 운서, 검암, 계양, 김포공항 등 모두 6개 역이 들어선다. 2단계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김포공항~서울역의 20.7km 구간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이 들어선다. 전구간 개통은 2010년 예정으로 총 사업비 3조1375억원이 투입된다.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 두 종류로 나뉘어 운영된다. 1단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역과 김포공항역간 6개역 모두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돼 30분이 소요된다. 같은 구간에서 직통열차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논스톱으로 연결한다. 6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직통열차는 25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오는 2010년 인천국제공항~서울역 전구간이 개통되면 일반열차는 5분30초 간격 운행으로 50분이 소요되며 10개의 모든 역에서 정차한다. 인천국제



시험운행중인 일반열차



일반열차 내부모습

공항~서울역 구간 중 김포공항역 1곳에만 정차하는 직통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4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항철도를 달릴 차량은 지난해 10월 2개 편성의 차량제작을 완료해 지난해 12월 영종도 차량기지에 반입됐다. 지난 1월부터 차량기지 안에서 주행 및 제동시험 등 20가지 항목을 테스트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차량본선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9월 12일에는 1단계 구간에 운행하게 될 직통열차 3편성, 일반열차 9편성 등 총 12편성의 열차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기 안 부러운 최고급 서비스

공항철도 차량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기존의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와는 차별화돼 있다. 운행 최고속도 시속 110km, 6량으로 편성되는데 고급스럽고 쾌적한 느낌의 객차는 마치 항공기의 기내 분위기를 옮겨온 듯하다. 내장재, 의자 등에 선진국 수준의 난연(難燃)규격을 적용했고, 차량과 차량사이에는 문이 없는 개방형이라 시원한 느낌을 주고 차량 사이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특색있다. 또한 모든 역사에는 설계당시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고려했다.

공항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2단계로 개통할 서울역에는 도심공항터미널 및 수하물처리 설비가 설치돼 모든 비행기 수하물을 바로 체크인 할 수 있다. 직통열차에는 KTX처럼 승무원이 탑승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도시철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철도 역사는 주변 경관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아름답게 설계했다. 특히 지상에 건설되는 검암역은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공항이 위치해 있는 운서역은 비행기 날개를 형상화하는 등 각 역마다 미래 지향적인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한다. 철로 설치에도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고려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첫인상으로 심어주기 위해 영종대교 등 서해바다를 가로지르는 전차선 설비를 서해안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승무원의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직통열차의 내부모습

국내 최초 민간 철도

공항철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SOC철도사업으로 진행돼 더욱 주목을 끈다. 지난 2001년 현대건설(주) 등 민간 10개사와 철도청이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공항철도는 2단계 준공 후 시설을 정부에 인도하고 30년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공항철도 요금은 기존 도시철도처럼 이용거리에 따라 운임을 부담하는 '거리비례제'로 부과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까지는 2,800원이고 2단계 구간인 서울역까지는 4,250원이다. 한편 직통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7,000원, 서울역까지는 10,650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철도는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어 약속시간에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공항에 도착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인천공항역에서 연계버스를 이용하면 을왕리 해수욕장 등에 5분 만에 닿을 수 있어 관광열차로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역에서 환승하세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공항을 찾는 사람들은 인천지하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도시철도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 새마을호나 KTX를 이용하려면 지하철을 내려 새로 승차권을 구매하고 개찰해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인천지하철 계양역에 내린 승객은 연결 통로를 이용해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새로 승차권을 구입하고 개찰을 한 후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도시철도와 공항철도를 이어줄 계양역은 시민들을 맞이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발비행기를 형상화한 외형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의 설치도 끝나고 2007년 3월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공항철도 계양역



5g 셔틀콕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5g의 셔틀콕이 하늘을 나는 듯 하다. 순간, 최고 스피드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스매싱에 관객의 환호성이 터진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06 인천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열기는 늦가을의 쌀쌀함을 녹일만큼 뜨거웠다.

이번 대회는 국제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주니어 배드민턴 경기대회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국제연맹 주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특히 1959년 배드민턴협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연 것이라 더 뜻 깊다. 우리시는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난 10월 문을 연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였다.

이번 대회에는 배드민턴의 강국 인도네시아, 중국을 비롯해 덴마크, 영국 등 국제연맹에 속한 4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약 1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대회는 국가대항 성격으로 열리는 단체전으로 시작했다.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5개 경기를 치러 이 중 3 경기를 따낸 팀이 승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단체전 결승에서 4연패를 노렸던 중국을 3-2로 물리치고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한편 개인전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자단식에서 홍지훈이, 혼합복식에서 이용대·유성연 조가 각각 우승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 '안방' 이펙트를 과시했다. 경기에서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했다면 우리시는 깔끔한 경기운영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의 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대회였다.

World Junior Badminton
INCHEON 2006



2014년에 다시 만납시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평가단이 지난 11월12일~14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우리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잘 치러낼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평가단의 이번 현지 실사방문에 대비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온 우리시는 스포츠대회 개최도시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줬고 평가단 일행의 긍정적 반응에 아시안게임 유치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1 인천시 청사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OCA평가단 2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된 유치기원-인천사랑 열린음악회 3 인천시청 중앙홀 오찬에 참석한 평가단 4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방문 5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예방 6 갯벌타워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에서 안시장의 브리핑을 받고 있는 평가단 7 대회개최 준비상황 보고회

OCA부위원장이자 이번 평가위원회 의장인 데일릿 셀소를 비롯해 나탈리아 시포비치 OCA 여성위원회 위원장, 압둘 타발 랫 요르단 NOC사무총장 등 5명의 평가단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지난 11월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인천에 머물면서 도시환경, 대회 개최능력, 대회 마케팅계획, 체육시설 건설 계획 등 유치제안서에 명시된 23개 항목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첫날 평가단은 헬기를 이용해 인천공항과 공항배후단지, 인천항 등 인천시내를 둘러본 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 아시안게임 유치기원-인천사랑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필리핀의 데일릿 셀소 OCA부위원장은 자국 출신의 팝 밴드 '메이88'의 열창에 호응을 보이며 우리시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무엇보다 평가단은 열린음악회에 참석한 2만 여명의 관객들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염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평가단은 김정길 KOC총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군수, 지역원로 등 20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저녁만찬에 참석했다. 평가단은 그들이 방문하는 곳곳에서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험했다.



4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방문 5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예방 6 갯벌타워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에서 안시장의 브리핑을 받고 있는 평가단 7 대회개최 준비상황 보고회

방문 둘째 날인 13일에는 인천시청에서 대회개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최첨단 설비로 완공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등 경기시설을 둘러봤다. 또 문화관광부로 이동해 김명곤 장관을 예방한 후 전경련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실사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방문해 안상수 시장의 브리핑을 받으며 동북아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인천의 비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 국회에서 인천지역 및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20여명과 오찬을 하며 인천시민은 물론 정계, 재계 등 전국적인 유치 열망을 확인했다. OCA평가단은 이렇게 2박3일 짧은 일정동안 우리시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을 둘러본 후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경우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귀국길에 올랐다.

유치후보도시를 현지 실사한 평가단은 OCA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보고서는 유치도시 표결권을 가진 아시아 각국 국가올림픽위원(NOC)들에게 객관적 비교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를 거쳐 내년 4월 쿠웨이트에서 열릴 임시 총회에서 45개 회원국들의 표결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셀소 부위원장은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를 능력이 있다”며 “실사를 마친 후 시민들의 강렬한 유치 의지를 OCA본부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아시안게임 유치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오는 12월에 있을 카타르 도하 OCA총회와 2007년 4월 쿠웨이트 OCA총회에서도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해 인도 델리와 경쟁하며 아시아 스포츠발전을 위한 인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미약했던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 국제사회에 인천이 국가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칠 것이다.



차한준 | 2014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신웅석 위원장

“느낌이 좋습니다, 마지막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박3일 동안 실사를 펼친 평가단에게 인천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정치, 행정,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참여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평가단은 무엇보다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에 대한 시민 각계층의 뜨거운 유치 열망에 감동했으며 우리시의 개최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치도시가 결정되는 2007년 4월, 쿠웨이트의 하늘에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유치성공 팻파르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해외 홍보활동과 정부지원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음악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공무원 '딴따라'

공무수행밴드

글 • 신은주 (인화여고 국어교사) | 사진 • 김정식 (자유사진가)

“너 행복하니?”

삼류로 전락한 '와이키키 브라더스밴드'를 이끌고 무대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친구 성우에게 고교시절에 같이 음악을 했지만 이제는 꿈을 포기해 버린 수철이 던지는 이 한마디 영화대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꿈꾸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던 순수시절은 생활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서히 막을 내린다. 그러나 영화는 들려준다. 꿈을 포기하

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꿈을 꾸었던 시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다고...

공무원들의 업무차량에 쓰여져 있는 '공무수행'이라는 사무적인 글자에 밴드가 결합한 '공무수행밴드'. 어색한 느낌 보다는 신선하다. 공무원들이 '그룹사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일까? 공무원이라는 신분, 안정된 직장은 영화 속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밴드'처럼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행복하게 연주할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시청 지하에 마련된 합주실. 방음벽이 된 좁은 공간은 그 대로 무대였다. 회원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키보드, 드럼, 기타, 베이스기타를 연주하고, 보컬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시청 지하는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차재국(시청 수산과 근무)씨가 '공무수행밴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인천시청의 직장 동호회 중에 밴드 동호회만 없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2004년 7월 19일 모임을 갖고 12월, 시청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창단 연주를 열었다. 연주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공무수행밴드'의 출발은 시작부터 힘이 실렸다.

밴드이름을 공무수행으로 지은 것은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공무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라고 했다.

회원들은 대학 시절 음악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직장인이 된 후 동호회에서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단원들은 25명 정도인데, 세 팀으로 구성해서 연주를 하고, 연습은 매주 수요일에 시청지하에 있는 합주실에서 한다.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보컬로 구성되는 그룹사운드의 성격상 한 두 사람이 빠져도 연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원 출석을 하는 편이라고 한다.

'공무수행밴드'는 노인 병원, 체육행사, 청소년 마라톤대회 등에 초청을 받거나 자원을 해서 봉사활동으로, 자선활동으로 또다른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래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락, 발라드, 트로트 등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곡을 한다.

드럼을 치는 서정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근무)씨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 다면서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을 전해 주었다.

밴드를 창단한 취지에 맞게 그들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12월8일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들과의 만남은 벌써 세 번째라고 했다.

인천에는 크고 작은 밴드 동호회가 80개가 넘는데 그들과 연합해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시정목표인 '세계로 펼쳐지는 문화도시 창조'에 기여하고 싶다는 공무원다운 소망도 빼놓지 않았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차재국씨는 밴드를 결성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딪치는 어려움으로, 이벤트회사에서 빌리는 장비 대여료 등 자비를 털어서 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습시간을 쪼았다.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을 접고 매주 연습시간을 내는 것은 역시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은 저녁 8시에 월미도 야외무대에서 공연이 있다. 인천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달빛누리축제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이 세 번째 연주라고 했다.

월미도로 출발하기 위해 연습실을 떠나는 회원들의 등 뒤로 11월의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월미도의 밤바람은 더 매섭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



막상막下

이 탈 의 공연

창극 '청(淸)'



창극 〈청(淸)〉은 호녀 ‘심청’에서 인간 ‘청’으로 거듭난 이 아기로 참신한 연출력, 현대적 감각의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무대 그리고 동서양 음악의 절묘한 앙상블 등이 돋보이는 공연이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심청하면 프리리처럼 따라다니는 호녀라는 수식어를 걷어내 의지가 강한 한 명의 인간 ‘청’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인천문화재단이 시민문화향수기회증진을 위한 기획프로그 램으로 선보이는 이번 〈청(淸)〉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 안옥선과 차세대 주자인 유수정이 도창으로 극을 이 끌고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등 100여명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_ 12월 9일(토), 10일(일) 오후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일반 20,000원 / S석(2층) 일반 10,000원

문의 _ 인천문화재단 (455-7134)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뮤지컬 <메노포즈>

‘폐경’이라는 뜻을 지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뮤지컬 <메노포즈>는 4, 50대 폐경기를 맞은 중년 여성들의 고 민을 유쾌하고 코믹하 게 담은 뮤지컬이다.



2001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뮤지컬 〈메노포즈〉는 여성 관객들의 환영을 받으며 현재 4개 국가 18개 도시에서 인기리에 공연을 치른 바 있다. ‘Only you’ ‘YMCA’ ‘What’s love got to do it’ 등 60~80년대 팝송을 개사 한 노래들이 중년의 향수 어린 감수성을 건드리며 우아한 무대 세트와 익살맞은 대사는 중년 관객을 몰입시킬 것이다.

일시 _ 12월 24일(일) 오후 4시, 8시

25일(월)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문의 _ 518-1511

이태리국제합창대회금상 수상기념 제11회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 정기연주회



1996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국내연 주 270회, 그리고 세계무대에서의 4회 대상, 금·은상을 수상한 인천여성문화회관합창단(지휘 김한철, 피아노 김명옥)이 이태리에서 열린 제6회 국제합창대회 금상 수상기념 으로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아베마리아, 샹투스 등 외국곡과 사계절에 맞는 우리가곡 그리고 안무를 결연인 줄거은 성탄곡을 들려준다.

일시 _ 12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초대

문의 _ 인천여성문화회관 (511-3141)

'마리아치 라틴'과 떠나는 중남미 음악기행



‘마리아치 라틴’은 멤버 전원이 국립극장과 국영방송국 소 속의 실력파 뮤지션으로 수많은 해외초청공연으로 중남미 음악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베사메 무쵸> <라 꾸카라차> 등 멕시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안데스 음악 과 살사음악 등 중남미의 고전적인 명곡들과 ‘아리랑’ ‘어 머나’ 등 우리나라 가곡과 가요를 라틴의 색깔로 연주하는 이색 무대를 만든다. 또한 마리아치 의상을 입고 ‘기타론’ ‘비우엘라’ 등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하며 연주곡과 중남미 문 화를 설명하는 등 관객들에게 새로운 세계와 다양한 문화 를 소개한다.

일시 _ 12월 15일(금)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3,000원(신착순 전화예매)

문의 _ 505-5995

일	화	수	목	금	토	일	
4	이탈의 展	제3회 인창광역시 사각대전 (524-6536) 12월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미추홀전시실	제42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867-2196) 12월8일~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 · 소 · 미추홀전시실	국립현대미술관 올헤의 작가 조각가 정현 초대전 (420-2717) 12월22일~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 인천시립무용단 창단25주년 제59회 정기공연 (영성황후)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420-2790	2 인천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강장하는 날)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420-2790	3 인천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강장하는 날)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420-2790
		제2회 V Hive 7906전 (031-403-1239) 12월1일~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6회 수형회(수채화) 협회전 (503-9800) 12월15일~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 · 소전시실	제5회 인천보육교사교육원합 교재교구 경진대회 (440-2683) 12월22일~28일 인천청룡문화재 법패와 자반무 사진전 12월22일~28일 (463-550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술충전시실	인천시립무용단 창단25주년 제59회 정기공연 (영성황후) 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R석 1만원, S석 5천원 438-7774	인천시립무용단 창단25주년 제59회 정기공연 (영성황후) 오전 11시,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R석 1만원, S석 5천원 438-7774	국립현대미술관 제2회 정기연주회 오후 6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R석 2만원 / 810-8502
11		제12회 아동인화상전 제41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로 453-2675	남동구 여성청년단 제5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무로 453-2675	7 신년 후 창작뮤지컬 (도란, 소사노)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514-2150	8 신년 후 창작뮤지컬 (도란, 소사노)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514-2150	9 신년 후 창작뮤지컬 (도란, 소사노) 오후 4시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514-2150	
		2006 무용교실, 작두연수 수료발표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초대 / 420-2788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회 제41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5천원 / 501-6770	13 풍요와 다산의 기원 (가마까지 말뚝작에) (~14) 오후 4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2천원, 학생 8천원 황태도판산노들음악교향회 (017-244-8147)	14 인천시립합창단 104회 정기공연 (러브 크리스마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 1만2천원, 학생 7천원 420-2784	15 2006인천송년음악회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428-0615	16 리얼그림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420-2027-8
18		제11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초대 / 511-3141	제19회 여성문화회관 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초대 / 511-3141	21 제7회 YMCA 합창단제10회 정기연주회 오후 6시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 433-0013	22 연극 (역적여명과 그 자식들) 오후 7시30분 인천시립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로 442-8017	23 라이프뮤지컬 (빨간모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2천원 / 두부기회 (02-2654-6854)	
		제9회 YMCA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초대 / 431-8161	제9회 YMCA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초대 / 431-8161	연극 (역적여명과 그 자식들) 오후 7시30분 인천시립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로 442-8017	연극 (역적여명과 그 자식들) 오후 7시30분 인천시립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로 442-8017	연극 (역적여명과 그 자식들) 오후 7시30분 인천시립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로 442-8017	라이프뮤지컬 (빨간모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일반2천원 / 두부기회 (02-2654-6854)
25	뮤지컬 메노포즈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518-1511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27 뮤지컬 시몬드오브부직 (~30) 오후 7시 *28 · 29 · 30일은 오후 3시, 7시 *28 · 29 · 30일은 오후 3시, 7시 R석 7만원, B석 2만원 438-6040	i-스포니에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진행될 12월 음악여행은 10일(일) 4시 실내악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줄 실내악 이야기, 23일(토) 5시에 출가문 크리스마스 피티컬의 연 주회, 그리고 27일(수) 7시에 연말 송년파티형태의 자신음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4회 개최하는 정기연주회의 2006년 마지막 순서인 제5회 겨울 정기연주회는 12월 19일(화) 오후7시30분 박물관 석남홀에서 바로크에서 현대까지의 실내악 곡들을 해석하고 개 들려줄 예정이다.	26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25 뮤지컬 메노포즈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518-1511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27 뮤지컬 시몬드오브부직 (~30) 오후 7시 *28 · 29 · 30일은 오후 3시, 7시 *28 · 29 · 30일은 오후 3시, 7시 R석 7만원, B석 2만원 438-6040	i-스포니에타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진행될 12월 음악여행은 10일(일) 4시 실내악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줄 실내악 이야기, 23일(토) 5시에 출가문 크리스마스 피티컬의 연 주회, 그리고 27일(수) 7시에 연말 송년파티형태의 자신음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4회 개최하는 정기연주회의 2006년 마지막 순서인 제5회 겨울 정기연주회는 12월 19일(화) 오후7시30분 박물관 석남홀에서 바로크에서 현대까지의 실내악 곡들을 해석하고 개 들려줄 예정이다.	26 부천청소년합창단 초청인형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합성교육문화회관 무로 652-2218	25 뮤지컬 메노포즈 오후 3시,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518-1511

리얼 그룹 콘서트 THE REAL GROUP CONCERT

리얼그룹은 여성보컬 2명, 남성보컬 3명으로 이루어진 스웨덴의 재즈 아카펠라 그룹이다.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음악원에서 만난 멤버들은 각각 음악활동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음악 실력을 갖추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전야제에 유럽을 대표해 참가했던 리얼그룹은 영화 '해적, 디스코왕이 되다'의 O.S.T에 참여해 〈Song from the Snow〉라는 곡을 불렀고 그들이 부른 곡이 김치냉장고, BC카드 등 CF 삽입곡과 라디오 시그널 음악으로 쓰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3백만장이 넘는 음반판매고와 1200회가 넘는 공연횟수가 그들의 폭넓은 레파토리와 인기를 말해준다. 아카펠라 그룹이지만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자아내게 하는 그들은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과 재즈와 팝의 명곡들 뿐 아니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로 꾸며 인천시민들에게 특별한 성탄절 선물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_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_ 인천&아츠 사무국 (420-2027, 420-2020~2)



2006 제야 음악회

클래식, 가요,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2006 마지막날 밤에 열리는 제야 콘서트

〈1부〉팝과 뮤지컬 의 밤

- *팝
조영남과 그의 밴드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김우형
This is the Moment
- *뮤지컬 〈미스 사이공〉
김우형 김보경 배해선 등
The Last Night of the World / I Still Believe / Buido
- *뮤지컬 〈벤허〉
배해선
Memory
- *뮤지컬 〈레 미제라블〉
이건명 김우형 김보경
Stars / Empty Chairs at Empty Tables / On My Own / One Day More

〈2부〉클래식의 밤

-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외 성악가
- *서곡
- *축배의 노래
- *베토벤 교향곡 9번

※공연 끝난 후 공연 장 밖에서 카운트다운 및 불꽃놀이 행사 예정.

일시 _ 12월 31일(일) 밤 10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의 _ 인천&아츠 사무국
(420-2027,
420-2020 ~2)

Congratulation!

극단 〈십년 후〉

제24회 전국연극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연극협회의 공동주최로 전국 연극인들이 모여 수원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24회 전국연극제가 10월29일 수원시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중국 연변, 러시아 등 해외 동포팀을 포함해 총 19개의 팀이 모여 경선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우리시에 등지를 틀고 있는 극단 '십년 후'의 〈사슴아 사슴아(오성근 작, 송용일 연출)〉가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2천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연출상은 〈사슴아 사슴

아〉의 송용일이, 연기자상은 〈사슴아 사슴아〉에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의 역할을 맡은 이경미에게 돌아갔다.

수상작 〈사슴아 사슴아〉는 고려 제7대 왕 목종의 비극을 그린 역사극으로, 997년 왕위에 올라 강조의 정변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목종 재위 기간의 일들을 110분간 무대 위에서 사실적으로 보여줬다. 이 작품은 2007년 서울연극제에 개막초청작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1994년 창단 이래 우리의 설화를 소재로 하는 창작연극을 고집해 온 '십년 후' (대표 최원영)는 뮤지컬 4편을 비롯해 20여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 중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이라는 뮤지컬은 2002년 초연된 이래 전국 6개 도시에서 200여 회나 공연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좋은 작품'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지역예술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경사가 겹치고 있는 '십년 후'는 여기에서 심표를 찍지 않고 창작 열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

단군 신화와 주몽 설화를 재해석해 어머니의 사랑을 조명한 〈도칸, 소서노〉라는 창작뮤지컬을 12월7일(목)부터 10일(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인다.

(문의 _ 514-2050 / www.samsin.info)



인 천 의 冊

경제 전문기자가 본 〈인천경제사〉

'경제 전문기자가 본 인천경제사'는 인천의 경제 현장을 통해 본 한국경제사의 축소판이다. 근대 개항기, 일제 병합기, 경제개발기, 제2개항기 등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네 부분으로 나눠 인천 경제사를 추적하며 주요 경제적 사건과 현장을 총 서론아홉 장면으로 나눠 되짚고 있다.

이 책은 미두거래스, 인천항 축항, 해안매립, 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업단지 조성, 지역 기업 및 금융사의 명멸 등의 역사를 뿌리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인천경제의 현재를 다루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김홍전은 인천일보 경제부 기자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관련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998년 7월부터 1년간 36회에 걸쳐 '장면으로 보는 인천 경제사'를 연재했는데 이 연재물에 새로운 시선과 자료를 보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됐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지역개발학을 전공한 저자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일보 경제부장 등을 거친 지역 언론계에서는 보기드문 경제전문기자 출신이다. (인천일보사 발간, 272쪽,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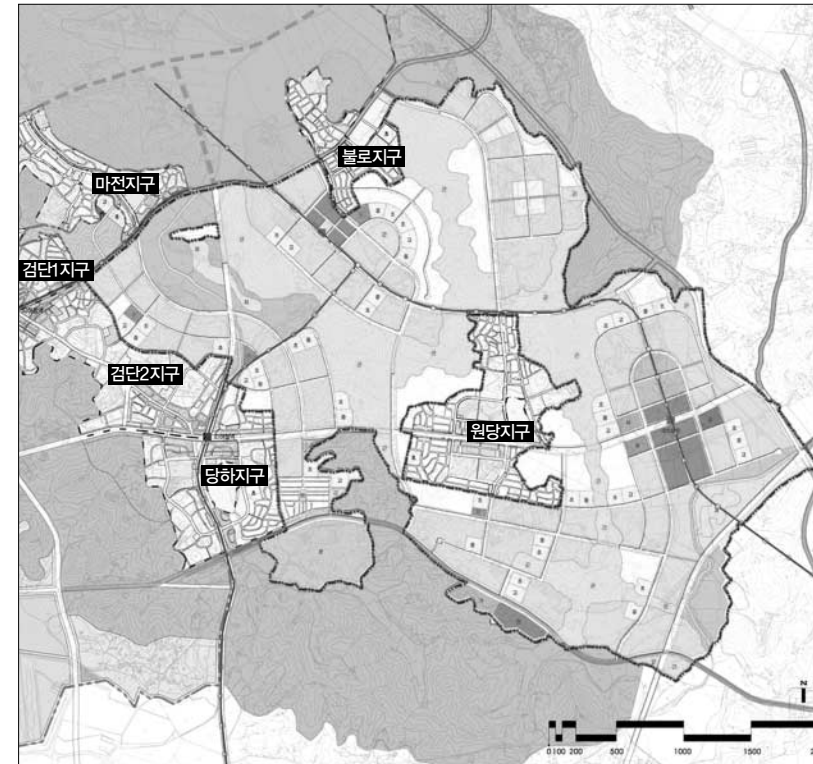
새로운 주거 파라다이스 검단

지난 10월27일 건설교통부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 1,124만㎡(340만평)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건설의 첫 번째 예정지로 파주와 함께 검단을 꼽은 것이다.

택지 개발의 최적지

인천에도 정부가 주도해 건설하는 신도시가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검단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온 우리시는 지난 6월 건교부에 택지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신청했고 건설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단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또 김포신도시, 청라지구 등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검단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검단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48번 국도 등이 인접해 있어 여러 가지로 신도시 건설을 위한 최적지로 낙점됐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과 연계가 가능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변의 교통여건이 좋고 광역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신도시로 개발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우리시는 건교부에 당초 검단신도시 개발에 1,818만 (650만평)를 요청했지만 건교부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694만 (210만평)이 준 1,124만 (340만평)로 결정했다. 이는 불로지구 북쪽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 작전 계획에 따라 야산 등을 훼손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개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124만 (340만평)이란 규모는 판교신도시 928만 (281만평)보다는 크고 김포신도시 1,183만 (358만평)보다는 약간 작은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아직 협의과정 중이기 때문에 면적과 규모는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자연친화적, 자족형 도시로

정부는 검단신도시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만 가구를 포함해 총 6만6천 가구를 지어 18만명 가량을 수용할 계획이다. 1헥타르(ha)당 인구밀도가 157명으로 분당(198명/ha)과 일산(176/ha)신도시보다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기존의 녹지를 활용하고 이미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해 공원녹지비율 25%로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만든다. 또 자연형 하천과 인공 수로를 연계한 실개천 조성으로 블루 네트워크(Blue Network)를 만들어 기존 신도시들보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큰짜산과 나진포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공원이 만들어지고 이와 연결되는 거점별로 생태공원을 조성해 전원형 도시로 꾸며진다. 그 외에도 상업

시설과 공공기관, 교육·문화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복합신도시가 될 것이다.

인접지역에는 약 330만 (100만평)의 검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검단 일대 기존 소규모 공장들을 수용해 자족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각 지역 커뮤니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小)생활권 단위의 공간 계획도 세워진다.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

검단신도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국도가 신설되고 지하철이 연장되는 등 교통대책도 마련된다. 광역교통노선으로 원당~경명로 간 5.74km, 김포~원당 간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노선을 연계하는 경전철을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인천공항 간 고속도로(2013년), 김포고속화도로(2012), 일산대교건설(2008)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시점에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검단지구를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15년 12월에 택지개발 사업 준공과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을 맡게 됐다. 국책사업인 신도시 건설을 처음으로 지방자치 공기업이 맡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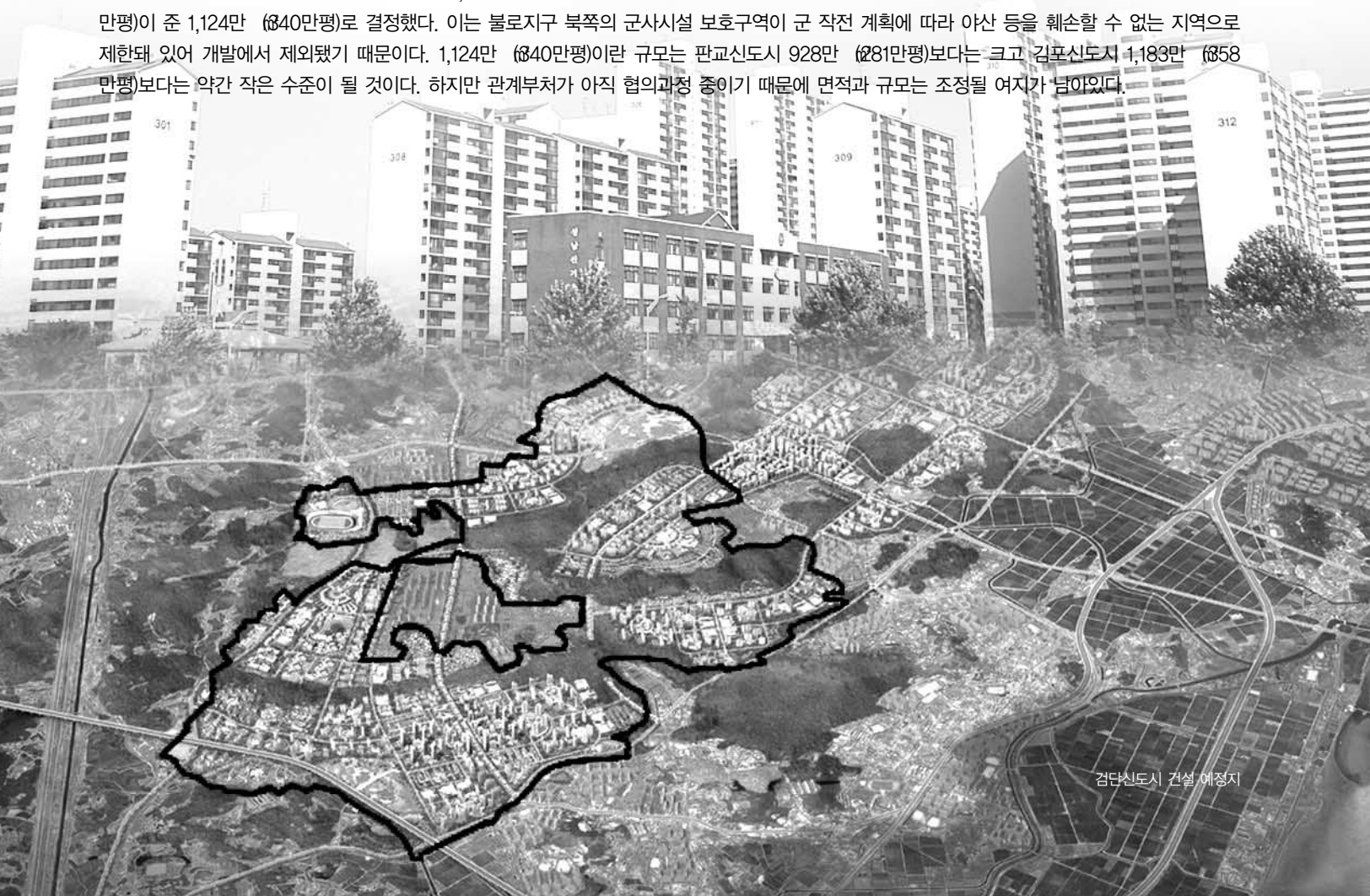
우리시에 검단신도시가 건설되면 국제공항과 항만을 비롯해 송도·청라·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과 그리고 자족형 신도시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허브도시로 한걸음 바짝 다가서게 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 비교 (자료-건교부 건설산업연구원/단위-만㎡ 만 가구)

구분	위치	개발면적	공급주택수	사업기간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등 서울 도심에서 반경 25km 이내	4,829	29.2	89~96년
2기 신도시	판교, 김포, 파주 등 서울 도심에서 반경 20~50km 내외	5,699	21.7	2001~2012년
3기 신도시	검단 등 서울반경 50~60km 내외	4,958	20	2008~2020년

지명유래 신성한 도시 '검단'

원래 검단은 김포군에 편입된 면급 정도의 지역이었으나 1995년 인천시 서구로 편입됐다. '검단'이라는 지명에는 몇 가지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그 지역이 과거에 갯벌이었고 그 위로 저녁노을의 모습이 마치 홍학의 날개와 비슷하다하여 '검을 검(黔) 자에 '붉을 단(丹) 자를 써서 검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검'의 옛말이 '곰'인데 '높다, 크다, 신성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군, 신단수, 천단 등에서의 '단'은 제천의식을 지내는 곳으로 검단의 '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검단의 지명은 후자의 유래에 설득력을 더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으로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성지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검단'이란 지명은 검당, 금당 등 유사한 명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있는데 그 지역 인근에는 대부분 성역의 의미를 갖는 제단, 서낭당, 소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단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거복지 평가 전국 1위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주택학회가 실시한 올해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에서 광역단체 가운데 우리시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시는 주택 보급률(107.6%),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면적 증가,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시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마이너스 옵션제 실시, 국민임대 주택사업용 택지 확보실적 증가(3년간, 4개지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 440-3815

북항 시대 개막



서구 원창동과 중구 송현동 일대에 북항의 첫 번째 부두가 지난 11월9일 준공됐다. 내항의 만성적인 적체 해소와 철재, 목재, 잡화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인천항에 17선석 규모로 북항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철재부두 1개 선석이 마련된 것이다. 동국제강(주)이 3년여간 418억원을

들여 건설한 철재부두는 안벽 길이가 270m로 인천항 8부두에서 처리하던 수입 고철을 주로 하역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이 건설 중인 5만t급 철재부두 2개 선석도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북항 개발사업은 인천항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원목, 고철, 사료용 부원료 등 산업 원자재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총 사업비 9천615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17개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천 북항은 내항·남항과 함께 급증하는 수도권 물동량 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지방해양수산청 880-6114

제3경인고속도로 첫삽



인천 남동구 고잔동~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11월 20일 착공됐다. 2010년 7월말 완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는 길이 14.3km, 폭 24~30m,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시화·시흥IC와 남동·물왕영업소가 들어서는 이 도로는 인천 제2연륙교(영종도~송도국제도시), 송도해안도로(송도국제도시~남동공단)와 연결된다. 또 시흥시 월곶IC에서 영동고속도로, 도리JC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목감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각각 연결된다. 도로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를 거치지 않

고 곧바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일대와 영동고속도로 월곶IC~안산IC 구간의 극심한 정체 현상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경기도청 도로과 031-249-3683

인천 김치 세계 브랜드화

우리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개 김치제조업체가 있으나 종업원 10~30명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인천지역 김치시장의 경우 연간 총 수요량 5만9천747t 가운데 가정에서 직접 담근 김치가 전체의 70%인 4만1천823t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김치상품 소비는 8%(4천860t)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시는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인천 김치를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강화 순무 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세계 브랜드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_ 시 농정과 440-2975

도개공-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지난 10월 26일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들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각종 투자유치 정보 공유와 투자 촉진을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도심 재생지역에 대한 관광·레저 시설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

문의 _ 인천관광공사 220-5000

자원봉사자 30만명 확충

우리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3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와 10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는 2004년 6만5천명에서 지난해엔 10만3천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9월 말 현재 18만명으로 급증했다. 우리시는 인천지역 사회단체, 기업, 종교단체 등 292개 단체에서 활동 중인 82만7천명의 봉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택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670

노인보호시설이 대폭 확충

우리시는 오는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에 대비해 시내 노인요양시설을 현재의 22곳(공공시설 17곳)에서 68곳(공공시설 28곳)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6곳에서 73곳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제는 그동안 각 가정에 맡겨졌던 노인 수발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맡아 노인 질환자들이 가벼운 부담으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매나 중증 질환 노인이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

우 일반 의료보험 환자처럼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한다. 우선 내년에 77억6천여만원을 들여 무료전문요양시설 4곳과 실비전문요양시설 1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9350

주한 중국대사 시청 방문



주한 중국 닙푸쿠이(寧賦魁) 대사가 지난 11월 10일 우리시를 방문해 우리시와 중국간 교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닙 대사는 이날 오전 차이나타운 화교 조찬모임에 참석한 후 차이나타운을 시찰하고 송도국제도시 홍보관을 관람했다. 이날 방문에는 중국 총영사와 비서관, 우리시 국제관계자문대사, 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닙 대사는 방문에 앞서 11월 9일 인천대학교 인문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학연구소 초청으로 '한중교류의 현황과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33

온라인 시정참여 확대

올 연말부터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품 제공, 무료 문자서비스(SMS)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제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확대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마일리지제 운영과 이벤트 실시에 따른 경품 제공, 문자서비스 통신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시 홈페이지 회원 7만5천여명과 앞으로 가입하는 시민들은 회원가입(100점), 회원 로그인(5점), 마이페이지 로그인(5점), 설문조사 참여(5점) 등 15가지 항목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가 적립된다.

문의 _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30

강화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 일대가 안보관광지로 본격 조성된다.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및 군부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적봉은 날씨가 맑은 날 정상에서 북한 황해도 연백과 해주시를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우리시는 제적봉 일대 9천975㎡ 부지에 모두 4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망대를 조성하고 길이 404m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1천213㎡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50

여권 우편택배로 받는다

우리시는 11월15일부터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권 우편택배제'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방법은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우체국에 수수료 3천원을 내고 택배신청을 하면 된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실제 여권 교부일보다 하루 늦게 여권을 받게 되므로 출국 일정 등

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여권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택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발급기관을 이용하면 되고 인천에서는 시청과 계양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70

문화가 강한 도시로 만든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분과는 인천지역의 문화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 ‘2006년 문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구월동) 4층 중회의실에서 ‘인천의제 문화분과 지표로 바라본 인천지역 문화기반 시설 조성 및 운용’이란 주제로 제1차 문화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남진 문화분과위원의 진행으로 권용철 우리시 문화예술과장과 김진이 인천예총 기획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인천지역의 문화전문가, 문화관련 행정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문화포럼을 통해 인천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문의 _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433-2122

환경미래관 생긴다

우리시의 환경오염의 실상과 해결책을 보여주는 환경미래관이 내년 7월 인천대공원에 문을 연다.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내 옛 동부공원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환경미래관

을 건립할 계획이다. 환경미래관 지하층과 1층에는 인천지역 자연환경의 변천사, 인천의 환경 실태, 지구의 생태계와 환경파괴 현상 등을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환경실험실, 녹색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쓰레기 재활용 과정, 화석·청정에너지의 실태와 개발 현황, 첨단 환경과학 개발 현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장이 설치된다.

문의_시 환경보전과 440-3510

가사·간병돌보미 수혜대상 확대

우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가사·간병돌보미 파견사업’의 수혜계층을 내년부터 노인 치매환자와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독거노인 등 1만2천200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간병비용 절액은 물론 정서적 지원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노인 치매환자와 중증장애인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간병이나 가사일을 돌봐주게 된다. 우리시는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돌보미’의 수를 올해 543명에서 7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의 _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22

항공사 설립 추진

우리시는 오는 2010년까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항공사의 설립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을 항공운송 산

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우리시는 지난 8월 전문기관에 지역항공사 사업을 포함한 항공물류도시개발 용역을 준 상태며 내년 5월께 이 용역이 끝나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일본 등 해외 선진 모델을 벤치 마킹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가 2010년부터 운항을 시작하면 지난 6월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이후 요금을 50% 이상 인하한 인천~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옌타이(煙臺) 노선의 중국 저가항공사들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40

일본 주요도시 기술교류 방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상익)는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관련 기업인을 포함한 20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월6일~11일 5박 6일에 걸쳐서 일본 기타큐슈·후쿠오카·요코하마·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상수도현황 및 선진 운영체제와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배수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체계 확립, 물 홍보관 및 역사관 건립과 상수도 종합전산관리시스템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국가품질경영대회 환경경영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720-2034

가천박물관 송도로 이전

지난 11월 1일 가천박물관이 남동구 구월동에서 송도로 이전해 개관식을 가졌

다.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여)은 연수구 옥련동 청량산 기슭에 상설·기획 전시실, 영상관, 의학사료관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100㎡ 규모의 박물관을 신축해 이전했다. 가천박물관은 국보 276호인 초조본유가사지론 권제53(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五十三)과 보물 13점, 고서 5천여점 등 모두 2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가천박물관은 매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문의 _ 가천문화재단 833-4747

60개 학교에 공원 만든다



우리시는 녹지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도심지역 내 소공원 기능을 갖는 학교 공원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72억원을 들여 시내 60개 학교에 추가로 조성한다. 우리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8개교에 생태체험학습장, 놀이기구, 녹지공간 등을 갖춘 소규모 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60개 학교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 5년간 모두 340개 학교에 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730

신캠퍼스 착공 기념 행사

시립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월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송도 신캠퍼스 착공

기념’ 공연 행사를 열었다. 인천대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착공기념과 대학발전 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식행사와 축하 공연으로 구성됐다.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는 11월 27일에 착공해 2008년 12월까지 총 3천560억원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내 13만8천7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5만여평의 규모의 건물을 갖추게 된다.

문의 _ 시립 인천대학교 770-8114

대한민국 사회책임경영대상 수상

지난 10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06 사회책임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노동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책임경영대상은 지난해 제정돼 올해 2회째로 뉴시스, 환경타임즈 등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있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이나 단체를 선정해 각 분야별로 대상과 함께 공로상과 특별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시는 여성취업페스티벌과 실버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지원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각종 간행물 배송·집수리·장

애통합교육보조원·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노인환경지킴이 사업 등 사회적 서비스 및 공공부문 수요창출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문의 _ 시 기획정책관실 440-2132

시내버스로 도시브랜드 홍보

인천시 도시브랜드(B.I)를 활용한 스티커가 새롭게 개발돼 시내버스에 부착된다. 우리시는 지난 11월초 도시브랜드(B.I)와 시화를 조합한 형태의 스티커를 인천 지역 간선, 지선, 광역버스 등 147개노선 1천761대의 시내버스에 전면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되는 스티커는 상단 부에는 ‘FLY INCHEON’이 하단부에는 시화(市花)인 ‘장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시는 지난해 장미를 형상화한 스티커를 제작, 시내버스에 부착했으나 색상이 노후된 데다 일부 버스가 자체적으로 장미스티커를 제작해 규격이 일정치 않아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된 스티커는 규격과 색상을 지정, 관리할 계획으로 시내버스의 고급화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중교통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85

교육청 소식

원어민 영어교사 전국 최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현재 인천지역 432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197명으로 45.6%의 배치율을 보였다. 학교별 배치율은 초등학교가 212개교 77명으로 36.3%, 중학교 117개교 81명 69.2%, 고교 105개교 39명 37.1%이다. 우리시를 제외한 타시·도별로는 서울 33.4%, 제주 31.0%, 경기 28.8%, 전남 20.8%, 대전 14%의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배치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동북아 국제도시’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인천시교육청과 우리시가 69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원어민 교사를 적극 유치했기 때문이다.

u-City 건설 첫 단추 꿰다



인천경제자유경제청(청장 이환균)은 지난 10월 16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u-City 시범사업에 참여할 IBM Korea, LGCNS, SK텔레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u-City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City 내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통합 단말기 등으로부터 도시 정보를 수집, 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분석해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거주민이나 관련기관에 분석된 도시정보를 배포·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u-City 송도국제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계기 및 글로벌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u-City를 이끄는 도시로서 국내·외 u-City 표준 도시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에 GLP센터 준공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I)은 지난 11월19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GLP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여평 규모로 동물사육실, 정밀화학분석실, 유전독성실, 공동기 기실 등의 첨단 시설과 2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 GLP는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제조·수입 허가 신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 시험을 말한다. KEMTI GLP센터는 울들어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미생물복귀 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GLP 국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빈해신구와 협력의향서 체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월 26일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텐진시 빈해신구관리위원회와 양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교류협력 및 상호 기능보완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 내용에 따르면 양 경제특구는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양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파트너관계 구축, 상호 기능보완, 상업기회 상호 추천, 양측 홈페이지 Link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양 도시의 기업간 무역·투자촉진 행사, 항만간 상호협력, 인력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지

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금융·투자·무역협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쉐커, 물류센터 준공

지난 10월 27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에서 독일계 다국적 물류업체 쉐커(chenker)의 동북아 허브 물류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세계 항공운송 2위, 유럽 육로운송 1위의 쉐커는 지난 1월 세계적인 물류기업 백스 글로벌(BAX Global)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아시아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 아태지역 진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세계 1천100여개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3PL(제3자물류, 부가서비스 포함 물류)업체이다. 이에 따라 쉐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출은 인천공항에 첫 세계적 물류기업의 허브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제수준 미관교량 건설

송도국제도시 내에 국제수준에 맞는 상징성과 예술성을 갖춘 미관교량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새로 건설되는 교량들은 송도국제도시와 기존 인천 시가지를 연결하는 송도3교(길이 300m, 폭 35m), 중앙공원 호수를 횡단하는 호수1교(길이 168m, 폭 20m), 호수2교(길이 40m, 폭 20m)이며 총 48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이들 교량을 단순 통과기능에서 탈피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건설기술 현상공모를 통해 우수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 교량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관교량 3개가 모두 완공되면 2009년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 송도해안도로 등과 연계해 교통량 분산 효과를 거두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문화 복합단지 첫삽



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 11월 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산업기술문화 복합단지(Complex)’ 기공식을 열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기존의 갯벌타워(지상 21층) 입주율이 99%에 달하는 등 기업 활동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갯벌타워 인근에 지상 21층(연건평 1만9천900평)과 지상 6층(연건평 2천380평)짜리 벤처빌딩 2개를 지어 갯벌타워-시험생산동-본부동-벤처빌딩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짓는 벤처빌딩에는 벤처집적시설, 금융시설, 게스트하우스, 운송시설, 의료시설,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주변에는 광장이 조성된다. 6층 빌딩은 내년 10월에 우선 준공하고 21층 빌딩과 광장은 2009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멕시코 메리다시와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인천시의회 자매도시방문단(단장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1월5일 멕시코 메리다 시청에서 두 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마누엘 푸엔테스 알코세르 메리다 시장과 올리시스 박 유카탄주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덕 위원장은 “1905년 우리 조상 1,033명이 일포드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정착한 곳이므로 더욱 의미 있고 마야 문명의 발원지이자 아름다운 휴양도시인 메리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돼 기대가 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메리다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동북아 허브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험과 발전전략 등 자매결연을 통해 많은 교훈과 도움이 될 것이다. 또 ‘2009 세계 도시엑스포’에 인천의 11번째 자매도시로 참가하겠다.”라며 자매결연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와 메리다시는 오는 12월 한인회장 방인 시 자매결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 2007년 상반기내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을 맞아 인천에서 ‘마야유물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매도시방문단은 멕시코에 이어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와 미국의 버뱅크시를 차례로 방문해 교류협력증진방안 등을 협의했다.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 지난 10월 23일 제150회 임시회를 열고 우리시가 추진중인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앙정부 및 체육계의 균형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2014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결의안’은 조남휘 의원 외 6명이 발의했고 결의안을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인천은 13조원에 달하는 생산파급 효과와 27만명의 고용효과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

게 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준비되는 각종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시설과 첨단도시기반시설은 경기개최 후 시민들의 여가·체육·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의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전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 그리고 성원을 모아 중앙정부와 각계각층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2014아시안게임 인천 유치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본회의 장면 인터넷 생방송실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제149회 정례회부터 정례회·임시회의 개·폐회 및 시정질문 등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인터넷 생방송은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팝업창을 클릭하면 실시간 생중계 되는 본회의 장면을 볼 수 있다. 또 지난 회기 본회의 장면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두바이에서 특별지자체 반대 의사 표명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은 지난 11월 14일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비즈니스센터(IBC)포럼에 참석했다. IBC포럼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박창규 의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시로부터 2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홍보 및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IBC포럼에서 특별지자체화 논의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가생존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첨병이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수도권규제 등 각종 제도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BC포럼은 전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기획단 주축으로 열렸다.

자료제공 _ 인천광역시의회 공보팀 440-6054

피부에 와 닿는 조례로 다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은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들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시민 편의에 맞는 조례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지요.

조례정비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약되고 관행적인 조례를 제정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조례특위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개정하고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활동 중 입법 활동이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현재 저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의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해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5대 조례특위를 통해 조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또 조례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조례의 합목적성을 찾아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조례 제·개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에 따른 공원시설 재투자도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대로 녹지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삶의 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푸른인천가꾸기 사업에 관한 조례, 상수도 이용요금에 관한 조례, 섬지역의 도선료 감면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특위 운영방침과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내년 9월말까지 현행 인천시 조례 299건을 모범 기준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할 것이며 시류에 맞지 않는 조례와 중복조항, 시민생활을 제약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특위 활동에 반영해 주민참여를 이끌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특위가 의원들을 위한 특위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특위가 되어야하며 시민과 의회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프로필

인천여중·인일여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자문위원 /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이사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1기 기획행정위원장·제4대 2기 의회운영위원장

내 집 살림처럼 알뜰하게 꾸려가겠습니다

“2007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5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우리시 살림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시민 개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지요.

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결위에서는 그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그 운용 그리고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의하고 분석해 시민의 혈세가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에 잘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의회의 옳은 역할이라고 인식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정책 대안제시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과거에는 의회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 집행부도 삭감을 우려해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책정에 있어 적절한 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 삭감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하고 우선시 되는 사업의 경우 증액동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관습대로만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며 아껴야할 부분은 아끼는 것을 기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삭감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에는 처음으로 약5조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독려해 재원확보와 외자유치에 더욱 힘쓰고 도시균형 발전사업에 예산이 중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복지예산 배분에 있어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구, 동구, 옹진군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신경을 쓸 것이며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시민들께서 저희 시의원들에게 위임해 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을 감시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내신 단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주요 프로필

백령 초·중·고 졸업 / 경기도의회 의원 / 제물포중학교 육성회 회장 / 인천광역시의회 제1대 의원 / 청수해운 사장 / 인천광역시의회 제5대 1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의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굳이 필요한 기구는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청렴하고자 노력한다면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회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지요.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공익 우선의 의무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이나 의원직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의원들이 공적·사적 행위에 있어 시민에게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에 대해 객관적인 윤리 심사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특별한 운영방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리특위는 의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이 공론화되었을 때 또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는 객관적인 잣대로 접근할 것입니다.

다.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윤리 규범을 어겼을 경우 규칙에 따라 의장과 의원들의 발의로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내용이 결정되면 철저히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올바른 의원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므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유지와 공익을 우선으로 의원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윤리특위는 위원들과 지속적인 모임과 스터디를 통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준수를 재확인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에 귀를 활짝 열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공인으로서의 덕목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의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5대 의원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윤리문제로 윤리특위가 모이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청렴도와 윤리의식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인천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YWCA 14대 회장(전) / 인천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전) / YWCA가정폭력상담소 초대 소장 / 열린우리당 인천시장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인천광역시 제5대 1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가을운동회

여렸을 적 초등학교 운동회 날은 가족 모두 아니 마을사람들 모두의 잔치날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할머니, 큰아버지, 동생 모두 다 있네요.
홍진표 (남동구 만수4동)



초초의 버스 드라이버

1957~1963년 동인천에서 하인천 또는 화수동독쟁이를 운행하던 9인 승합차량이다. 동인천 광장이며 뒷편에 보이는 건물은 동인천 역전 파출소, 좌측에 보이는 버스는 대한여객이며 인천에서 김포 및 성동(지금의 강화대교)또는 양곡을 운행했다.
장석명 (남구 주안4동)



우비파션 어때요?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1박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설악산일대. 에이구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토산품점에서 우비를 마련해 입고 여행지를 맘껏 누비고 다니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멋지죠?
홍금숙 (계양구 용종동)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앨범 안에 고이 간직해둔 아빠 엄마의 사진. 올해가 결혼기념 15해를 맞이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시고 잘 생기셨죠? 이 사진의 소중한 웃음처럼 지금도 서로를 아껴주시고 살아가는 모습에 이 딸은 행복합니다.
박은지 (남구 주안4동)



인천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동창생들

2006년 10월 10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신지호텔에서 제3회 인천공립 旭(현 신흥), 龍岬小學校(현 축현), 인종(현 제물포고), 인상(현 인천고) 합동동창회가 열려 한국의 인상35회 동창친목회 회장과 총무인 내가 참석했습니다. 1945년 종전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고향은 인천이라고 말하는 동창생들입니다. 내년 제4회 모임은 인천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정태원 (남구 용현동)



백제가족

9월에 있었던 연수구 능허대 축제에서 백제의 상을 온 가족이 같이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체험들에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함경란 (연수구 연수3동)



와~아 책으로 만든 집 완성

19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가 사주신 동화책에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과자로 만든 집이 나오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책으로 드디어 집을 지었습니다.
오영미 (남구 학익동)



도호부청사

인천 문학경기장 쪽에 있는 도호부청사. 지나갈 때마다 저건 뭘까? 궁금해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정말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설미라 (남동구 간석1동)



오늘의 숙제

다섯살 터울의 남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이의 오늘 국어 숙제가 바로 '가족의 발 씻어 주기'랍니다. 작고 통통한 여동생의 발이 너무 귀엽다며 한번이면 될 것 을 씻고 또 씻고... 그리고는 앞으로 매일 씻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임헌범 (계양구 병방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알뜰족의 겨울나기 지하철역이 ‘딱’ 이야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 눈이라도 내릴라 치면 도로가 빙판길이 되어 집 밖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일. 이 겨울, 인천에 지하철이 있어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게다가 지하철역사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우리 일상생활에 휴식과 편안함을 주는 문화공간이 되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계산역 탁구 동호회



우리집 스포츠센터로 ‘찜’

인천지하철 경인교대역과 계산역에서는 지하철과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 풍경과 만나게 된다. 지하철역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꾸민 시민탁구광장이 그곳이다. 지난해 5월 경인교대역에 4대의 탁구대를 설치해 만든 시민탁구광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평일에는 50여명 주말에는 1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주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올해 5월에는 계산역에도 시민탁구광장이 조성됐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탁구대 4대를 설치하고 저녁 9시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계산역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동호회가 생겨날 정도로 호응이 높고 주말 저녁시간이면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탁구대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계산역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지하철 개통 7주년 기념 탁구대회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 시민탁구광장 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라켓과 탁구공만 준비해 오면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_ 계산역 546-3151, 경인교대역 553-3394)



지하철도 ‘웰빙’ 시대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두툼한 겨울 옷 만큼 세심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혹시 내가 비만은 아닐까, 혈압이 높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이들이라면 인천지하철을 이용해 인천시청역에 들러 건강체크를 할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철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인천시청역 지하 2층에 건강관리센터를 개설했다. 이곳에는 키와 체중을 측정해 비만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와 혈압계 등이 설치돼 있다.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의 지원으로 설치된 건강관리센터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길병원 의료진 2명이 상주하면서 기초 건강상담을 해 준다. 평소에 지하철을 내린 이들은 의료진 없이도 혈압, 체중, 비만도 검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의 _ 인천시청역 451-3624)



쉬면서 책도 읽는 ‘공공쉼터’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지하철 시간을 맞추려고 할 때 흔히들 책을 읽는다. 그런데 미처 책을 준비해오지 못했다면 무엇을 할지 막막해진다. 하지만 인천지하철에서라면 걱정할 필요없다. 지하철역에 있는 자율 도서관화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터미널역은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좋은 책을 서로 나누기위해 지난해 3월 자율 도서관화대를 만들었다. 지역주민과 영풍문고 등이 도서 1천여권과 책장을 기증하는 등 정성으로 꾸민 것.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보고 싶은 도서를 선택해 탁자에 비치된 자율반납대장에 책 이름과 성명, 연락처, 대여일자를 적은 후 무료로 자유롭게 책을 빌릴 수 있다. 반납할 때는 자율반납대장에 반납일자를 적고 책을 제자리에 두면 된다. 지하철공사는 터미널역 외에도 인천지하철 22개 모든 역에 독서마당을 꾸몄다. 역에 따라 공간의 크기나 비치돼 있는 책의 종류가 제각각이지만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편안히 쉬면서 책을 골라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같다.



인천터미널역



동수역



전시회 감상도 지하에서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은 알뜰한(?) 단체들의 좋은 전시공간이다.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재활용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예술회관역 통로에서 열렸다. 우리시가 주최하고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지하철 역의 따뜻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붙들었다.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복한 나눔장터의 경우 보통은 중앙공원에서 열리지만 비가 올 경우에는 장소를 예술회관역으로 옮긴다. 몇 차례 비 때문에 장터를 열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한 주최측이 예술회관역의 협조를 받아 우천시에는 재빨리 행사 장소를 옮기기로 협의한 덕분이다. 인천시청역에서도 또 다른 전시가 한창이다.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진이 전시되고 있는 것. 전문봉사활동, 가족봉사단 활동 등 주제별로 자원봉사를 소개하고 있다.



예술회관역

지난 2003년에는 인천연고의 SK와이번스가 창단 4년만에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거둔 것을 기념한 프로야구의 명장면을 담은 ‘2003 프로야구 사진전’이 인천터미널, 부평, 예술회관 등 세 개 역에서 순회 전시되기도 하는 등 지하철역사는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여러 단체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회관역



부평역

웨딩드레스부터 중고 책까지 쇼핑 천국

예술회관역에는 언제부터인가 인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자부하는 웨딩샵들이 하나들 들어서더니 어느새 아담한 단지를 만들었다. 성화, 모노, 백인선웨딩 등 쇼윈도우에 비친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짝 없는 처녀라도 괜히 가슴 설레게 한다. 웨딩샵에 이어 메이크업, 여행사, 한복집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보석백화점까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덕분에 결혼 예물에서 신혼여행에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웨딩 타운이 되었다. 경인전철로 환승할 수 있는 부평역에는 환승통로에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있다. 도서 할인판매점에서부터 해외직수입브랜드 할인매장, 완구점, 화장품점, 의류점, 구두점 등이 있어 웬만한 패션 타운 못지않다.

거리 청소년의 보금자리, 드롭인 센터

지하철역은 ‘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겨울철이면 노숙자나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통한다. 인천지하철 부평역 대합실 한편에 아담하게 동지를 틀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소년 Drop-in Center’는 지하철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다. 집을 나와 세상을 막막하고 두렵게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곳, 거리를 배회하거나 학교, 집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소년드롭인센터다. 이곳에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겨울 맞아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추위와 맞서야 하는 청소년에게는 내복부터 외투까지 장만해 주기도 한다. 혹시 임신한건 아닐까 걱정되는 청소년은 임신진단 시약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잠깐의 휴식,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위해 들러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좀 섭섭하다. 성교육, 금연교육, 진로교육, 취업지원 등 요일별로 특별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하고 위기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상담, 장기심리상담 등을 해주기도 한다. 센터에는 이영복 실장을 비롯해 요일별 자원봉사자가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의 ‘대모’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덕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출의 메카’로 불리는 부평역이 위기 청소년들의 따뜻한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문의 _ 청소년드롭인센터 516-1318)



삼실(三實)의 실천



글 • 이기우 (재능대학 학장·교육학박사)

해마다 이맘때면 나의 화두는 ‘삼실(三實)’을 제대로 실천했는가?로 귀결된다. 내 삶의 오른쪽에 써 붙여 놓고 경계로 삼는 삼실(三實)이란 성실(誠實), 진실(眞實), 절실(切實)을 말한다. 그리 특별하거나 멋진 것도 없는 말이지만 35년이 넘는 공직생활은 이 삼실(三實)의 실천도량이었고 이들이 나를 가치 있는 세계로 인도했다고 말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성실(誠實)은 매사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진심어린 마음으로 남과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 효행으로 유명한 증자는 남을 도와주면서까지 성실을 다하지 못했는가를 반성하라고 했다. 영감(靈感)이 천재의 자량이라면 성실은 둔재의 무기다. 성실은 꾸준한 노력이고 진정한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표적인 CEO 잭 웰치가 성공의 키워드로 꼽은 열정 역시 성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진실(眞實)은 정직한 마음을 말한다. 진실은 그 사람의 신뢰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신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를 되짚어보며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악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실에는 욕심내지 않는 삶의 자세도 포함한다. 진실의 내공을 닦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명리만 좇다가는 낭패하기 십상이다. 공자께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라고 한 말씀도 배우는 사람의 진실한 자세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절실(切實)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간구하는 자세를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는 말처럼 간절히 갈망하여 힘쓰다보면 어느새 구하는 바가 눈앞에 있을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해내야 한다’는 절실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을 열게 한다. 상대방의 가슴을 울리는 절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애플컴퓨터를 설립한 세계 IT업계의 신화적 존재인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라’고 역설한다. 열망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 다음에야 비로소 절실했으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삼실(三實)을 우리 인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재능대학을 동북아 중심, 인천의 대학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으로 하여 이 삼실(三實)을 더 옹골차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나날이 새로움을 갈망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삼실(三實)의 실천 단위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이 시사하는 바는 다시 새길 만하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는 뜻으로 ‘대학’에서 읽은 글귀이다. 원래 ‘日新 日新 又日新(일신 일일신 우일신)’으로 하루하루가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라는 의미다.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되새긴 이 말처럼 우리 모두와 우리 인천이 새해에도 더욱 나날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용트림하는 600년 도시 텐진

우리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중국 텐진(天津 천진)시는 매년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지역경제, 문화, 역사 등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우리시 직원들에게 12일간의 뽐뽐했던 강의와 견학일정은 물리적 시간에 불과했고 텐진이란 도시가 심어준 진한 인상과 추억은 혈관을 타고, 뱃속 깊은 곳에 아련한 기억으로 새겨졌다.

글 · 사진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낯선 도시에서 배어나는 친근함

낯선 도시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느끼는 기대와 설렘은 누구나 맛보는 여행의 희열일 것이다. 텐진공항에 도착한 27명의 인천시 공무원 연수단은 행정학원(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온 이아동(李兒童)부원장 일행의 환영을 받으며 텐진시 행정학원으로 이동했다. 연수단은 입교식을 마친 후 12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텐진은 약 600년 전 명조가 난징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황제가 도읍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처음 개발됐다. 인천이 서울의 관문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처럼 텐진도 수도 북경의 관문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텐진은 중국에서 제3의 도시라는 점을 비롯해 항만, 공항, 공업단지가 위치했다는 점 등 인천과 공통분모가 많았다. 우리시와 교류가 시작된 후 13년이 지난 긴 세월 동안 텐진과 인천은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어느 자매도시보다도 텐진은 더 쉽게 친근해지고 정이 많이 가는 도시임에 틀림없었다.



60%이상의 텐진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유럽풍의 상점건물

옛것과 새것을 아우르는 도시

도심의 출퇴근 시간, 도로 중심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로 정체되는 반면 도로 한 편에는 인력거와 자전거가 전용 신호등에 따라 여유롭게 이동한다. 텐진의 이런 풍경은 순간적으로 '옛것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했다. 이렇게 중국의 거리풍경 한 컷 속에도 19세기~21세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텐진은 1858년 영·불 연합군의 침공에서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조차지역으로 외세의 이권 다툼에 놓여 강제 개항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였다. 이런 연유로 텐진 곳곳에서는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이런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것은, 텐진시가 도시의 역사성과 미관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인사동 거리와 유사한 '고문화거리'에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이곳에는 1km남짓 청조시대 건축양식의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중국 민예품, 생활용품, 고서적, 선물가게 등 상점에 들어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하는 묘미가 더 크다. 상점 주인이 부르는 가격의 1/5정도가 적정가(適正價)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니 제값주고 사온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변화의 중심에 선 텐진

연수단은 텐진시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텐진시 미래발전관'을 둘러보며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 속에서 텐진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텐진은 경제성장을 위해 '三五八十(3년간 국내총생산 2배증가, 5년간 낡은 주거공간 개선, 8년간 기업의 구조조정, 10년간 빈해신구 건설완료)'이라는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현대화를 향해 경제성장의 틀을 마련했다. 전략에 따라 텐진시는 소금기와 중금속으로 오염된 350km²의 불모지를 20년간



'텐진시 미래발전관'을 시찰하는 연수단

간척해 개발했다. 이 지역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어깨를 겨루는 ‘빈해신구’이다. 텐진시는 이곳을 국제적인 무역특구로 지정해 ‘제2의 푸둥지구’로 만들어가고 있다. 빈해신구와 우리시는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이라는 같은 목표를 둔 경쟁도시지만 최근에는 빈해신구 관리위원회와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교류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해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또 연수단이 방문한 TEDA(텐진경제기술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중국의 특구 중 투자유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텐진은 2008년 북경올림픽 공동 주최도시로 물방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국제적 규모의 올림픽센터를 건설하고 도시이미지를 단장하는 등 손님맛이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중국 기타도시 짹짹이 견학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도 북경** | 텐진시 행정학원이 계획한 연수단 일정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배려한 모습이 엿보였다. 가장 먼저 텐진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중국 황실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북경의 자금성이었다. 명·청시대 24명의 황제들이 거닐었을 궁정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왕좌에 앉아 호령하는 황제의 목소리가 광대한 자금성 안에서 찌렁찌렁 울리는 듯했다. 자금성 건너에는 1949년 10월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언했던 천안문 광장이 있었다. 연수단은 북경 교외로 빠져나와 만리장성으로 이동했다. 달에서 유일하게 보인다는 만리장성은 전체 길이가 6,000km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역사의 풍파와 진시황의 야심이 벽돌 하나하나에 화석처럼 새겨져 있는 듯했다.

| **군자의 도시 태안** | ‘군자가 사는 곳에 누추함이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말처럼 그의 고향 곡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군자의 인격이 묻어나는 질박한 도시였다. 그곳에는 지금도 50만명의 인구 중 10만명이 공씨 성을 가졌다고 하니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노인들도 공자의 후손들임에 틀림없었다. 태안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태산인데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하되’라는 시 구절과는 달리 태산은 설악산(1,708m)보다도 낮은 1,545m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5대 명산 중에서 태산을 천하제일의 산으로 뽑는 데에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란단다.



텐진시 미래발전관



위 : 상해 푸둥간부학원 전경
아래 : 상해 황푸강변의 동방명주탑

| **역동적인 국제도시 상해** | 태안에 서 10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한 후 가까스로 닿은 곳은 바로 상해였다. 텐진 보다는 화려한 색채를 지닌 도시였다. 연수단은 먼저 성급 간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최첨단 교육시설인 ‘푸둥간부학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 열사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을 한 후 중국의 남쪽을 대표하는 중국식 정원인 ‘예원’을 방문했다. 중국의 한 관리가 아버지를 위해 18년간 지은 개인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에 놀라고 그 아름다움에 한번 더 놀라게 된다. 무엇보다 상해 여행의 백미는 해가 진후 황푸강변 외탄거리를 걷는 것이다. 1842년 중국이 아편전쟁에 패해 개항하게 된 후 상해로 진출한 유럽 열강들이 황푸강변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들어서 외탄거리를 형성하게 됐다. 밤이 되면 상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탑을 비롯해 수많은 빌딩들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짜이찌엔 텐진

타도시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온 연수단원들에게 텐진행정학원은 내집마냥 포근하게 다가왔다. 타국에 있다는 낯센도 잠시, 연수생 개개인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텐진의 풍경 속에 그렇게 동화되어갔다.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던 향차이(향채)라는 향신료가 점점 익숙해질 무렵, 아쉽게도 이별은 냉정하게 찾아오는 법인가보다.

지금 이 순간도 연수단원들은 해당부서에서 공직의 의무를 다하고 있겠지만 백일몽처럼 문득문득 텐진에서 연수를 떠올릴 것이며 숙소에 항상 마련됐던 차스민차 향도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이다.

길모퉁이에서 찰칵



텐진의 명물 ‘구부리’
구부리(狗不理)는 반발효 상태의 반죽을 이용해 만든 일종의 만두로 그 유래가 재

미있다. 청나라 때 어느 한 농가에 40살이 넘는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귀신이 질투하지 않고 귀하게 자라도록 구자(狗子:우리나라에서 흔히 ‘개똥이’라 이름짓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아이는 만두빚기에 열중해 자신만의 만두를 개발했고 그 맛이 뛰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만두를 칭찬했지만 정작 구자는 만두를 빚느라 너무 바빠 사람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손님들은 ‘狗子賣包子不里人’이라 하였는데 해석하면, ‘구자(狗子)가 만두(包子)를 파느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不里)’는 것이다. 구부리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서태후도 즐겨먹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구부리 만두 전문점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사랑을
공공 묶어주세요~**
텐진시 중심에는 텐진 태고의 역사를 품고 흐르는 해하(海河)

강이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 해하강을 굽어보고있는 또다른 수직의 절대자가 있다. 바로 광활한 텐진땅 위에 위용을 과시하듯 415.2m 높이로 서 있는 텐진TV수신탑(天塔)이다. 이 천탑의 노천 전망대에는 수만개의 자물쇠가 철조망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곳을 방문한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며 걸어둔 것이라고 한다.



**조각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중국의 역사 유적지 어디를 가든 구석구석에서 실존 또는 상상속 동물들의 부조를 볼 수 있다. 장수를 의미하는 동물로 학과 거북이 등이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상상의 동물인 용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누비는 가공의 동물이자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그밖에도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 비씨 등 다양한 상상의 동물을 나타낸 부조들을 볼 수 있다.

중국 우호도시 살짝 엿보기

요녕성 다롄(大連 대련)시



우리에게 ‘대련’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도시 다롄은 우리시와 1994년 4월 2일 우호도시를 맺었다. 요녕반도 최남단에 위치했으며 상하이와 텐진에 이어 중국 제3의 항구도시임을 자랑한다. 1898년 제정 러시아의 조차지였던 다롄은 지금도 러시아풍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서정적인 도시다. 또 러일전쟁 후 1905년 일본이 조차지를 인수해 22만 여명의 일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일본풍의 느낌도 도시 구석구석에서 배어나온다. 94년 우리시와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기념조형물을 교환했다. 현재 2005년부터 격년제로 공무원 상호 연수 교류를 맺고 있으며 1년간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산둥성 칭다오(靑島 청도)시



칭다오는 우리나라와 위치상 근접해 있어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도시다. 1898년 독일 조계지로 개항하면서 오렌지색 지붕에 빨간 벽돌로 지은 독일풍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칭다오 맥주를 생산하게 된 것도 독일에 의해 전수된 맥주 제조기술 때문이다. 우리시와 1995년 9월 27일 우호도시를 맺어 지난해에는 10주년을 기념한 ‘리듬’이라는 조형물을 기증하기도 했다. 매년 1회 우리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칭다오시와 기술교육상담과 무역상담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열고 있다.

요녕성 단둥(丹東 단둥)시



호로 발전했다. 1995년 9월 25일 우리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교류해오고 있다. 우리시는 단둥에 인천산업단지를 설치해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 인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중국 생산기지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 우리시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인천-중국의 날 축제’와 단둥에서 열리는 ‘압록강 국제 관광절’에 상호방문을 통해 축하와 축제지원을 하고 있다.

산둥(山東 산둥)성



산둥성은 중국 동해에 인접해 있으며 17개의 시와 31개 현급 시로 이뤄져있다.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한국 최대 교역지역이다. 산둥성은 그밖에도 태산이 위치하고 공자의 고향인 곡부 등 역사 유적의 도시다. 우리시와는 지난 2004년 2월 16일 우호도시 교류를 맺었다. 특히 우리시를 비롯해 수원,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8개 도시와 산둥성의 8개 도시가 한중경제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제, 행정, 문화, 관광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칭다오에서 처음 열렸으며 올해 9월에는 수원에서 열렸다.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와 철교로 연결돼 있는 최대 변경도시로 북한과의 교역중심지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둥시는 1907년 개항장이 됐고 3년 후 일본의 대륙진출의 문

산둥성은 중국 동해에 인접해 있으며 17개의 시와 31개 현급 시로 이뤄져있다.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까우며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한국 최대 교역지역이다. 산둥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어떻게 다를까?

자매도시 _ 도시 상호간에 경제·문화를 교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별한 친선 우호관계를 맺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예술단, 청소년 민간교류단, 관광단 상호 교환 등 시민축제 상호교류와 수출·투자상담단 상호 파견, 도시간 네트워크 연결, 사무소 개설 등 경제·사회·문화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호도시 _ 자매도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경제 또는 문화분야에서의 특정사업을 위해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첨단정보산업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상호 도시간 투자·통상 추진, 인천기업전용 산업단지의 조성, 문화교류 등 특정한 사업 또는 전문분야에 대해 우호도시들과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디저트의 순서는 과자·과일·차

디저트(Dessert)는 프랑스어로 데세르라고 하며 원래 ‘추가’라는 뜻으로 고기요리가 끝난 후에 먹는다. 순서는 과자·과일·차의 순이다.

서양 요리에서는 설탕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전분도 적게 사용하므로 식후의 디저트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 일반적이다. 디너의 따뜻한 디저트로는 푸딩, 크림으로 만든 과자 그리고 파이 등이 있고, 차가운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과 셔벗이 있다.

수분이 많은 멜론이나 오렌지류는 스푼으로 먹는다. 작은 크기로 통째로 제공된 멜론은 왼손으로 껍질을 잡고 오른손의 스푼으로 오른쪽부터 떠먹는다. 수박이나 파파야 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먹는데 씨는 입 속에서 발라내어 스푼에 뱉어 접시에 놓는 것이 예의이다. 사과나 감 같은 수분이 적은 과일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 먹는다. 포도는 손으로 먹어도 상관없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함께 따라 나온 웨이퍼(웨하스)나 막대과자와 번갈아 가면서 먹는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 지기 때문에 과자를 먹어 입안의 냉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스푼으로 먹을 때는 여기저기 건들지 말고 앞쪽부터 동굴을 파듯이 퍼먹도록 한다.

식후의 커피는 진한 것을 조금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는 향이나 마시는 법이 독특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커피에 위스키를 넣고 생크림을 얹어 마시는 아이리쉬 커피나, 꼬냑과 오렌지향을 가미해 마시는 카페로얄은 식후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설탕은 넣자마자 녹이지 말고 천천히 녹여 처음에는 쓴맛을, 나중에는 달콤한 맛을 즐기도록 한다. 티백을 이용해 녹차나 홍차를 마실 경우 어느 정도 우려나온 티백을 컵에 대고 눌러 짜지 말고, 스푼 위에 놓고 실을 감아 짜낸 뒤 컵의 뒤쪽에 가로로 놓는 것이 깔끔하고 세련된 매너이다.

자료제공 _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762-5181)



샐러드와 디저트 사이의 치즈

치즈는 서양요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식품으로, 특히 프랑스인들은 샐러드와 디저트 사이에 치즈코스를 마련한다. 작은 쟁반에 여러 종류의 치즈가 함께 나오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으면 된다. 치즈종류에는 프랑스의 브리치즈, 영국의 체다치즈, 독일의 원스터, 이태리의 파마잔치즈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의 묘 터 있는 반주골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수인산업도로와 만나는 남동구 장수동 남동정수사업소 뒤



이곳은 옛날에 반주골로 불렸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이승훈의 비석과 묘지의 빈터가 남아있다.



이승훈과 자식들이 순교 후 묻힌곳이 반주골이니, 인천은 한국천주교회 창설부터 깊은 관련이 있는 셈이다.

이승훈
1756~1801



이승훈은 1756년에 태어나 24세에 과거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을 단념하였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이런게 아니야...



그후 1783년 동지사 서장군에 임명된 부친을 따라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나를 따라 천주교 예배에 한번 가보겠나?

천... 천주교?



이승훈은 북경에서 선교사들에게 교리를 배웠고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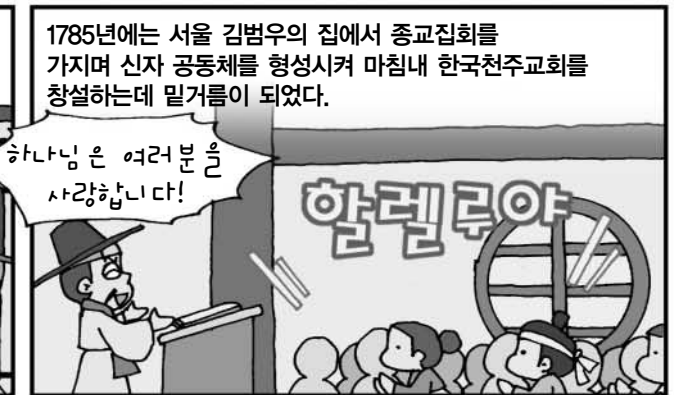
아멘

할렐루야



귀국한 이승훈은 이벽, 정약용, 권일신 등에게 천주교를 알리며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네...



1785년에는 서울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집회를 가지며 신자 공동체를 형성시켜 마침내 한국천주교회를 창설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종교 집회는 관헌에 적발되고 말았다.

이 천주교쟁이를 포박해라!



모진 고문에 지친 그는 결국 배교를 선언하고 말았다.

으...으... 천주교를 믿지않겠소...



그러나 고생 끝에 풀려난 그는 더욱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였다.

천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네집이...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로 다시 체포돼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인천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처음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아펜젤러 목사



초창기 선교사들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왔고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내리교회를 창립했다.



이렇듯 인천은 천주교, 개신교 등을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시킨 중심지인 것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임 많은 12월... 술관리가 건강관리



글 • 이무일 원장 (인천시 한의사회 홍보이사, 고운몽한의원 891-0288)

2007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한해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계획과 반성을 하려면 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맨 정신에 하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된다.

우선 건강한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그래야 이 글을 읽는 주당들도 약간의 정당성을 얻게 될 테니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알코올은 하루에 1잔 정도 소량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는 동맥(혈관)내부에 침적되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건강에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로 바꾸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간이나 췌장, 기타 다른 장기 손상 및 안전 사고를 고려해 하루에 마시는 음주량은 남자는 소주 4잔, 임산부를 제외한 여자는 2잔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하루에 5잔 이상씩 장기간 과음을 하면 알코올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정상인에 비하여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심장의 부피가 20~30%정도 늘어난다. 소량의 알코올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지만 다량의 알코올은 심장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신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고 다시 산으로 변해 몸 밖으로 배설된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쌓여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일으키고 신체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로 인해 건강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번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2~3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간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 따라서 술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 간세포 손상이 더욱 커진다. 주 2회 이상의 음주는 건강을 망친다.

일은 힘들고 먹는 것도 많지 않은데 살은 자꾸 찌고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술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만인 사람들은 술

자체가 더욱 비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간과 췌장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간은 각종 해독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의 해독기능을 저하시키는 음주는 간의 기능 중 지방분해와 대사를 담당하는 쓸개즙의 분비기능을 떨어뜨려 되어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만든다.

또한 췌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코올성 췌장염이 생기게 된다. 흔히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 판정을 받은 분들 중 음주량이 많은 분들은 당뇨약을 먹기 전에 금주부터 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음주가 과한 다음날 설사를 심하게 한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음주 후의 관리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가 소화상태를 회복시키는 것, 두번째가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땀을 내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술 먹은 다음날 설사를 하는 것은 나쁜 지 않은 반응이다. 오히려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설사 한번 안한다 하는 분들은 몸의 항상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아직도 우리네 문화가 술로 친해지고 말문을 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간단한 간청소 방법이 있다. 압착방법으로 100% 짠 올리브 유 1/2 맥주컵 분량과 1컵의 냉장쥬스(포도, 오렌지가 좋다)를

잠자기 전 마시는 것이다. 다음날 시원하게 대변을 볼 수 있다. 대변에는 초록색 담즙과 함께 각종 기름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주가 주 3회 이상 되는 분들은 적어도 보름에 한번씩은 해주는 것이 좋다.

음주가 과하고 항상 피로하고 얼굴은 검게 변하고 목과 가슴 주변이 늘 붉어져 있는 분들은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상이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를 눌러봤을 때 굉장한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린다. 요즘은 한의원에서도 간의 해독기능을 올려주는 각종 해독요법들을 많이 시행한다. 술로 인한 독소를 풀어주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피로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비타민 금융상품 변액보험

글 • 김전욱 부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최근 몇 년사이 펀드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근래 국내 금융계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금융상품이 투자와 보장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선진국에서 인기

하지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변액보험에 대해 생소해하고 있으며 보험 이상의 상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특유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며 일례로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전체 보험시장에서 51%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다. 특히 적금과 같이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다가 자녀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그리고 노후자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고 평생 종신보험의 보장혜택까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변액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이다. 기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상당한 기간(대략 7년 이상)이 지나야 실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원금수준을 회복하게 되어 그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약관대출이란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납입한 원금보다 훨씬 적어 그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대출이자 또한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변액보험은 일정시간(대략 1년~2년) 이후에는 인출을 하더라도 약관대출의 개념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처럼 꺼내 사용할 수 있고 잠시 형편이 어려워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보험사에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휴지 상태에라도 기존 보험과 달리 보험의 효력은 당연히 유지되고 그동안의 납입축적금도 펀드에서 당연히 운용되고 있을 것이다.

노후대비, 장기저축에도 최적

둘째, 변액보험은 납입원금의 대부분이 적립식펀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펀드투자를 통한 수익성 추구와 동시에 적립식 펀드의 분할매수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셋째, 10년이상 납입시 비과세효과가 있다. 이자 및 배당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현 과세체계하에서 이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변액보험은 그 소유권리자를 제한없이 바꿀 수 있기때문에 향후 계약자 변경을 통해 비과세통장을 자자손손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변액보험상품의 큰 장점이다.

넷째, 동일하게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비해 그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현재 대다수의 펀드 수수료가 연1~3%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액보험 상품은 연 수수료가 0.4%~0.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펀드상품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상황대응이 어려운 (펀드의 경우 환매와 재가입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변액보험의 경우 언제라도 펀드 변경이 가능한 엠브렐라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 부담 및 복잡한 환매와 재가입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변액보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일까? 변액보험은 적립식펀드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험에 펀드의 장점을 부가한 상품이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그렇듯이 초기의 사업비 비중이 커서 최소한 7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변액보험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재테크를 넘어서 세테크(절세상품)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면서도 동시에 보장의 혜택까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을 꾸준히 장기간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비과세는 물론 고물가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노후대비 상품임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수수하고 단정하고 논리적이고
명석한 여성 변호사

박소영 씨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변 호사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내 얼굴에 퍼진
웃음을 지우지 않았다. 곁에 앉은 홍보실장도
세상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웃는다. 그들
웃음이 양지쪽 같고 안온해서 마치 수십 년 지기(知己)와 함
께한 자리처럼 점심은 맛이 있고 분위기는 상냥하고 다정했
다. 특히 회 맛을 더한 것은 까다롭게 격식을 차리지 않은 채
편하게 입을 열게 하는 수수한 대화 스타일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朴素榮)입니다. 여기 법무법인 로시
스종합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처음 응접 의자에 앉으며 초대면 인사를 할 때에도
변호사는 활짝 웃음을 띠었다. 그리고 이쪽의 신분을 확인하
고 나자 이내, 지지난호의 ‘미스 사이공보다는 예쁘게 나와
야 된다’며, 또 한 차례 웃음을 크게 웃은 것도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식사 동안에도 그 웃음을 끝내 멈추지 않
았고, 누구의 이야기도 끝까지 웃음으로 들어 준 것이다.

그런 태도는 변호사가 밝은 심성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내면의 교양이 은은하고 온유하게 피어나
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짐짓 자유공원 폭대기에 있는
여학교를 나와서 그럴 것이라는, 이쪽의 우호적이기는 해도

씩 들어맞지 않는 표현에도 반 농담 정도로 수궁하는 태도가
역시 유쾌하고 밝았다.

따지고 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 정확한 사고 체
계를 두뇌 속에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변호사가 아닌가. 그
러나 그것 역시 따지고 보면, 또 흔한 우리의 편견일 것이다.
법정에서라면 틀림없이 ‘자일록의 칼이 절대로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내지 못하게 할 만큼’ 냉정한 논리와 기지(機智)로
무장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점심을 먹는 순간에는 그렇
지 않은 것이다. 평화롭게 엉뚱한 상상이나 공상을 현실과
뒤섞어 제멋대로 늘어놓고 있는 부류에 대해서 그저 밝음과
웃음과 덕담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본성은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명석하면
서 또 한편 참하고 수수하고 다정다감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정다감한 부분에서 그 증명이, 반주로 소주를 마신 것이
이쪽인데도 마치 아득히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듯한, 또 얼
마간은 이쪽의 분방한 분위기를 선망(羨望)하는 듯한 그런
눈길을 보내기까지 한 것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쪽 ‘인
류’가 그나마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가 부러웠던 것일까.

“시 같은 거..., 학교에서 배운 거나 겨우... 그렇지만 남편



은 그런 분야에 좀 통해요. 첼로 연주가 취미거든요.”

이쪽은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이 사막처럼 험한데, 변호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이나 에드가 앨런 포우의 시 ‘아나벨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쪽의 자유가 아주 조금은 부러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 법무관이 되어 충청남도 어디쯤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은 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하, 부부가 같은 해에 고시를 패스했다고 말했던 것을 깜빡 잊었다. 맞다. 사진 속의 눈썹자리가 시커멓게 질고 서글서글하게 생긴 그 미남 법무관! 남성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한 유일한 남자로서, 곁에 잡아 두어야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한 남자, 고려대 법대 재수생 동기, 2001년 고시 동기, 2002년 사법연수원 동기, 2004년 부부 변호사로서 일생의 동기. 그리고 남편은 군법무관으로 간 것이다. 참, 둘 사이에 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다.

“주말 부부예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인천 우리 친정 부모님 댁에 같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기 보아 주시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남편은 내일 옵니다. 물론 기다려 지지요. 첼로요? 집에 왔으니까 첼로를 켜기는 하겠죠. 그러면 전 곁에서 감상이나 하는 거구요.”

아무튼 12월 마지막 송년회 인물을 여성 변호사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12월이 법이나 혹은 변호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름답고 밝고 선한 성품의 여성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아주 마음이 행복하다. 부친이 연안부두 쪽에서 어구상(漁具商)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도 꾸밈이 없었고, 신흥초등학교, 신흥여중, 인일여고를 나온 토박이 인천 사람인 점도 푸근하다.

성품은 구김이 없고 환한데, 그러나 외모는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좀 무겁고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듯한 인상이 풍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직업이 직업이니 만치 얼굴의 화장도 함부로 진하게 하거나 멋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제약인 것이다.

의상 역시도 썩 화려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방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느낌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서는 상황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 의상의 채색이 어둡고 무겁고 되바라지지 않은 쪽으로 선호(選好)될 것이 틀림없다. 스타일 역시 단정한 정도에 머물 것이고 구두도 하이힐처럼 굽이 높고 뽀족한 것은 가려지게 될 것 같다. 편집장이 알려 준 대로 변호사는 편한 검은색 케주얼화를 신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어느 여학생들과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축현학교 앞 대동문구 2층의 음악홀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었다. 거기에는 음악을 내보내는 멋진 디스크 자기가 있어서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또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해서 옆자리의 친구로부터 ‘소영이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하는 식의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반장으로서 이른바 ‘반팅’을 주선하면서 한 남학생과 1개월쯤인가, 아주 짧은 만남이기는 했어도 데이트를 해 보았던 경험도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을 지나며 대학에 가서는 법관이 되어 꼭 약자의 편에 서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조인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이야기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안타깝게도 옛날 마음속에 가졌던 이상은 말 그대로 그저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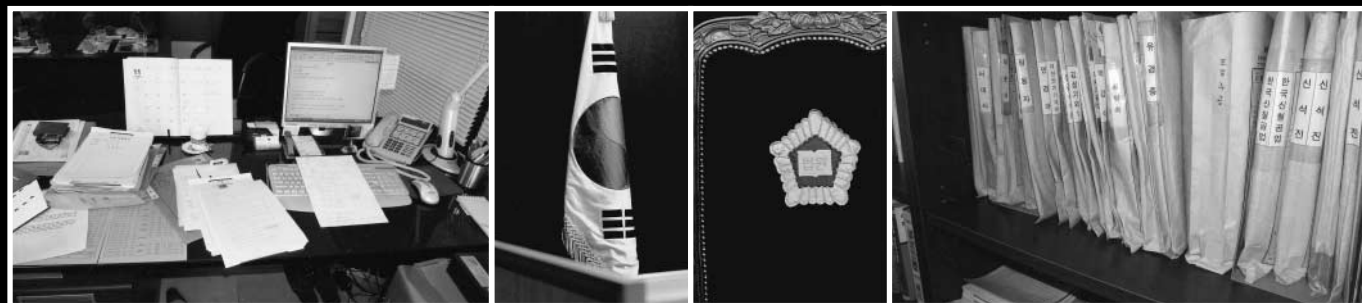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요. 현실은 결코 이상이 아니니까. 현실이 이상이라면 이상은 우리 마음에, 영혼에 깃들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여성 변호사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하면서도 다감한 특징을 살려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들과 이혼 사건 등의 가정 문제 같은 민사 사건을 전담한다.

“변호사의 태도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법을 넘어서서까지 무한정 옹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인자든 탈세자든 명백한 범죄자에 대해 그가 그런 범죄에 이른 데 상응하여, 법이 정한 바 가장 적절한 죄 값을 물도록, 법을 잘 모르는 그를 대신해서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감과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 고객에 대해 행하는 의무가 결코 상충되거나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이 오면 이 착하고, 그러면서 당찬 젊은 변호사는 이쪽의 권유대로 미술 전시회도 가보고, 영화관에도 가고, 연극도 볼 것인지... 그런 곳을 들고 와서 남편과 어느 분위기 괜찮은 집에 마주앉아 술이라도 한 병 나누는 것도 좋아 보일 텐데...

“책에 잘 나와야 하니까, 이제부터, 오후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진을 찍을 거구요.”

그래요. 그렇게 밝고 웃는 얼굴 사진 많이 찍어 뒹요. 그리고 꼭 아주 덕망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요. 어느 날 그 좌절한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름방학과 봉사활동



지난 여름방학 때 친구 신원이와 동막해수욕장으로 난생처음 봉사활동을 갔다. 무더운 태양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홀트 일산 복지타운 요양원에서 나온 20여명의 장애인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였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체가 부자유한 장애인들을 대하기는 사실 꺼림칙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니 그러한 불안은 싹 가셨다. 우리는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 주고, 갯벌로 나가 함께 어울려 놀아주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30대 정도의 아줌마 아저씨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재미있어 하기에 정말 내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나와 신원이는 장애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지난 여름방학 때 홀트 일산 복지타운 요양원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생각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했던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무척 대견스럽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과 커다란 보람을 갖고 살기에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에 지팡이가 돼 줄 수 있는 중학생이 되겠다고 생각해본다.

신기철 (부평구 산곡3동)

요양원 할머니들께 재롱으로 봉사를 ~

지난 겨울방학 때 어머니, 동생과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봉사활동하러 갔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하시는 것도 도와드렸는데, 무엇보다 그 동안 연습해 두었던 노래와 춤으로 재롱을 보여드렸더니 어찌나 즐거워하시던지 매우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박수연 (서구 심곡동)

봉사, 그 즐거움에 대하여

촉촉히 비가 내리더니 나뭇잎의 색깔이 울긋불긋 겨울의 문턱을 지나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때. 목요일 9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희준, 한수씨, 미진언니. 그들과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신문에 난 어르신 무료급식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고 각자 모여 4명이 한조가 되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건만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일이 있거나 늦으면 연락을 해 착오없이 배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70명분의 준비를 위해 메뉴를 확인하고 모자라는 재료가 있으면 보충하고 다듬고 씻고 끓이고 볶고... 어르신들 식성에 맞게 내 가족 먹인다는 생각으로 청결과 정성으로 최고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배식하는 사이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편찮으신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여쭙고 챙기다 보면 우리들의 점심시간이 된다.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뒷정리 하다보면 땀이 흐르고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지만 얼굴에는 감사와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기쁨을 주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남은 부분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보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유기연 (연수구 옥련동)

타인을 돕는 일이 바로 나를 돕는 일

40여년을 살던 부산을 떠나 인천으로 이사가 확정되었을 때 친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니 인천가면 우찌 살래? 불임성이 좋아 이 옷을 잘 사귀기를 하나, 그렇다고 나돌아다니는 성격이길 하나.” 그러면서 걱정스런 얼굴로 인천으로 이사 가거든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나의 자원봉사활동. 수백 명의 어른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봉사는 반찬거리 씻어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집안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고, 지체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씻기는 목욕봉사는 일곱 명의 아이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한나절을 때 밀어 주시던 친정어머니 생각을 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또한 외출봉사는 인천의 볼거리에 목이 말랐던 제겐 더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제가 더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으니까요.

항상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에 흐뭇해졌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끼니 걱정 안하게 해준 남편한테 감사하게 되고, 공부는 못해도 속 안 썩이며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매월 첫 주 목요일 봉사단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날짜별로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적어 놓습니다. 목욕봉사, 외출봉사, 급식봉사...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달력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달력에 웬 동그라미가 이리 많노? 어머니 생신은 아이고, 애들 생일이야? 아니면 백화점 세일기간이야?” 호호호. 달력의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더 뿌듯해집니다. 봉사활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임순정 (서구 검암동)



남의 일은 남의 일로만 보라고?

아마 작년 여름인 듯싶다. 그러니까 우리아들이 5살이었던 해. 아들이랑 볼일이 있어 급하게 가고 있는데 한 네 살쯤 돼 보이는 꼬맹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우리 뒤를 쫓레쫓레 따라오고 있지않은가! 꼬맹이한테 엄마 어디갔느냐고 물어보니 뒤쪽으로 손가락질을 한다. 발길이 급해 “그럼 엄마한테 가렴”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아무래도 그 꼬맹이가 신경 쓰인다. 뒤돌아보았더니 아뽏싸~!! 차가 많이 다니는 큰길을 건너려고 하는 준비 자세. 너무 놀라 한걸음에 뛰어갔다. 한손은 꼬맹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손엔 아들의 손을 잡고 꼬맹이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엔 꼬맹이의 엄마는커녕 그 누구도 없었다. 난감하고 걱정도 되고 아이는 울고... 일단 ‘아이를 안심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약속은 뒤로 한 채 돌아주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어느 아주머니 한분이 급하게 뛰어오는 것이 보인다. 꼬맹이의 보호자였다. 속으로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 뒤 아주머니께 상황설명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손을 잡고 있던 꼬맹이 손을 뉘아채듯이 하며 나란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듯이 아니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을 하며 쌀쌀한 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리는 것이다. 진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약속까지 제쳐두고 자기 아이를 짧은 시간이지만 보호해주었는데... 굳이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자 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이 일을 다른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더니 남의 일은 남의 일로만 보라고 한다. 참... 도시사람들은 그런가보다. 남의 일은 남의 일뿐이라고.

신용자 (남구 주안4동)

눈이 많이 내린 어느날

2월 말 쯤일거다. 겨우내 눈이 내리지 않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눈이 내리길 아이들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이 밤새 소복이 쌓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경비 아저씨는 마이크에 대고 같이 나와서 눈 좀 치우자고 방송을 하셨다. 그때 잠깐 내가 아니더라도 치울 사람이 많은데 뭘 하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놀이터



에 나간다고 잠바에 모자에 장갑까지 끼고 신이 났다. 그러는 사이 나는 눈 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카메라를 챙기고 잠바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아이들이 콩나물시루의 콩나물처럼 다들 나와 눈을 굴리고 눈싸움도 하고 얼음 미끄럼틀도 어느새 만들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하는 추억을 되새기며 아이들 사진 찍기에 바빴다. 그런데 한곳에선 통장, 반장님들이 경비 아저씨와 눈을 쓸고 계셨다. 주차장 아니더라도 사람들 다니는 데는 쓸어야 한다며... 얼마나 미안하고 쑥스럽던지. 다들 봉사하는 마음보다 내가 편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추운데도 나와서 눈을 치우셨을 것이다. 조금만 공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 내 가족들이다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겨울 눈이 많이 내리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나가서 꼭 눈을 치워야지.

이연재 (연수구 선학동)

반찬대신 밥이라니

봉사중 한바탕 웃었던 에피소드를 적어봅니다. 너무 덥고 힘든 하루를 보냈던 여름. 그 날은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의 하루였다. 어르신들이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시는 모습에 ‘반찬만들기’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반찬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담은 후 뒷정리를 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지은 밥이 많이 남아 한 언니가 집에 가져 가려고 밥을 봉투에 챙겨 놓았다. 그게 화근이었던 것.

검정봉투에 있는 반찬을 배달하려고 20여 개를 들고 내려왔다. 언니는 봉사자님과 차로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1봉지가 남는다고 나에게 전화가 왔다. 차근차근 따져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알고 보니 한가득 담긴 밥 봉지를 드렸던 것이었다. 몇 년 동안 반찬 서너가지를 받으시다 갑자기 밥 한가득 받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밥 봉지를 받으신 어르신은 얼마나 황당했을런지. 웃기긴 했지만 정말 실수 없이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며 오늘하루도 열심히 반찬 만들기에 정성을 드리게 된다.

송영해 (부평구 일신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돼지’

다음달 테마는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돼지’입니다. 돼지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100자 이내)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작품전시회 열립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인지방노동청 지원으로 노동부 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 시범 사업인 여성취업·창업을 위한 전문가 과정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 **작품내용** : 밀반찬, 전통음식, 비즈공예, 한지공예, 리본공예 등
- **일시** : 12월 12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 남동구청 7층 강당

문의 _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428-669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절차

- ① 내국인구인신청·노력 (사업주 www.work.go.kr 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② 구인노력 7일후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주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③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사업주)
-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대행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 / 입국대행비 및 취업교육비 납부
- ⑤ 근로계약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 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입국관리사무소)
- ⑦ 입국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⑧ 취업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 ⑨ 사업장배치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 ⑩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주 ⇒ 출입국관리사무소)
- ⑪ 사후관리서비스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기업체에서는 신청 후 www.eps.go.kr에서 외국인 입국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의 _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한국전통 예절교육 실시합니다

우리시 여성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문화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인천시 거주 결혼이민자
- **교육기간** : 11월 15일(수)~12월 27일(수) (총 7회)
- **교육시간** :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교육내용** : 생활예절(인사법 등), 다도예절, 복식예절, 차례·제삿상차리기 등

- **수강료** : 무료

문의 _ 시 여성복지관 (440-6545, 6541)

인천국제공항 오기 신고 공모

우리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5년 만에 공항서비스 세계1위, 화물운송 세계3위, 여객운송 세계10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외국 항공사 등이 개항이전 국제공항인 서울공항 또는 김포공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오기사례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11월 1일(수)~12월 10일(일) (40일간)
- **응모자격** : 인천시민, 타 시·도 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 **제출내용** : 인천국제공항의 오기 사례
- **공모내용** :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 공식명칭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는「인천국제공항(ICN)」의 오기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내용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항공사 및 외국 공항 등에 시정을 요구하여, 바른 표기를 사용하도록 활용

- **사례**
 - － 목적(도착)지를 ‘인천’이 아닌 ‘서울’로 표기
 - － 출발 및 도착공항을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서울공항’ 또는 ‘김포공항’으로 표기
 - － 목적(도착)지 코드를 ‘ICN’이 아닌 ‘SEL’ 또는 ‘GMP’로 표기
 - － 상기 사례로 공항 안내판, 비행기표 및 기내 방송하는 경우

- **당선작 선정 및 시상**
 - －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 내역의 사실성 및 적격성을 심사하여 당선자 선정

- **당선작 발표** : 12월말 시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 당선자 100명, 1인당 5만원 (문화상품권) – 시상품은 별도 우편 송부

-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공고일 현재 오기 사항이 아닌 과거 사례
 - － 동일 사항(같은 항공권 및 그림파일)을 타인이 중복 접수한 사례 : 중복 접수자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
 - － 일반 통념상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한국행 노선이 없는 경우 등)
- **기타** : 제출된 신고내용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진 및 그림 파일 등 접수된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있음

문의 _ 시 항만공항지원과 인천국제공항 제 이름 찾기 운동 담당자 (440-3372)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2006년 제6차 이벤트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케이크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 어른 모두 기다리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눠보세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12월 22일(금) 오후 7시~오후 9시

- **장소** : 별관 조리실

- **대상** :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30명

- **접수** : 11월 27일부터

- **준비물** : 앞치마

- **재료비** : 7,000원(접수당일 납부해 주세요)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접수당일 제출)

문의 _ 시 근로자문화센터 (578-6123, 512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김장시장 열립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월동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아래와 같이 임시 김장시장을 개장하오니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기간** : 11월 21일(화)~12월 20일(수)

- **개장시간** : 오전 2시~ 오후 5시

- **일요일 개장** :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 **거래품목** : 김장용 농산물(무, 배추, 고추, 마늘) 및 기타 채소·과일류 ※경매시작이 새벽 2시이므로 새벽에 방문하시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농산물 거래정보조회** : <http://sm.incheon.go.kr> → 경락가격정보

- **삼산농산물관리사무소 찾아오는 방법**

- － 위치 : 부평구 삼산동 7-1번지(삼산2택지내)
- － 시내버스 : 10, 34, 67, 67-1(도매시장 후문하차)
- － 마을버스 : 554, 555(주공미래타운 하차 도보 5분 거리)

문의 _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40~63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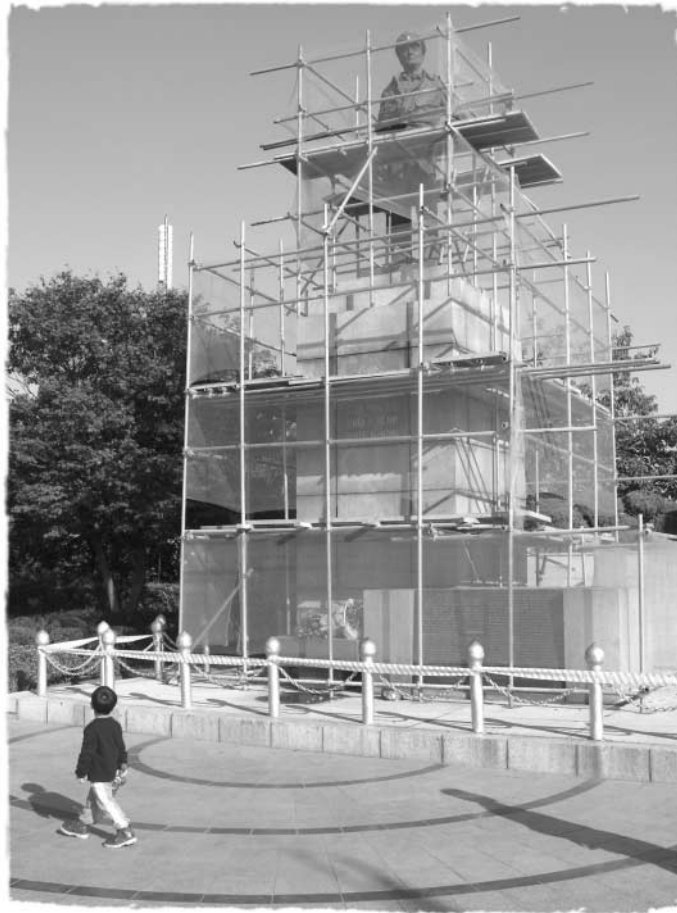


“당신을 사진 작가로 모십니다”

〈굿모닝인천〉에서는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중에 계절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굿모닝인천〉표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작품규격** : 11”×14” 컬러로 인화가능한 슬라이드 필름이나 사진 파일
- 접수방법**
-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시청 〈굿모닝인천〉편집팀
 - － 인터넷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말머리를 [표지]로 하여 등록
- 접수기간** : 2006년 12월 ~ 2007년 11월 연중

채택된 작품에는 원고료 15만원을 드리며 채택된 작품의 권리는 〈굿모닝인천〉에 귀속됩니다.



이젠 좀 쉬자

“장군님, 어디 아파요?”

아이 눈에는 동상의 모습이 이상한지 자꾸 주위를 맴돌며 올려다본다.

지금은 맥아더 동상과 그 주변을 보수하는 중.

지난 1년 동안 동상을 가운데 놓고 끊임없이 벌어진 ‘동상이몽’.

논쟁은 휴전 중이고 동상은 마치 김스를 한 채 한해를 보낸다.

(자유공원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생일케이크도
이젠 떡으로!

전임, 취임, 축하, 창립, 생일, 약혼,
결혼기념일, 선생님, 어르신 찾아뵈는 때,
운전면허증 딴 날,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날엔
우리 떡, 떡케익, 떡 선물세트는
특별한 날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문의전화 1544-1582